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회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며

인사말 박현동 아빠스(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사 회 백종연 신부(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주제발표 1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준비와 계획

김승한 신부(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위원장)

황태종 신부(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태원 신부(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2부 생태사도직단체 하늘땅물벗의 조직과 확산

정성일 신부(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홍태희 위원(서울대교구 하늘땅물벗 반석벗)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정기 심포지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0-2021년의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와 이어지는 7년이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때(kairós)’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은총을 실제로 체험하는 ‘희년’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하셨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강조하는 ‘생태적 회개의 실천’이 개인을 넘어 각 공동체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하려는 한국 교회는 지난 5월 24일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는 개막 미사를 봉헌하였고, 이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각 교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체 진행: 백종연 신부

15:00	소개	백종연 신부(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15:05	인사말	박현동 아빠스(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15:10	[1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준비와 계획]	
	주제발표 1	김승한 신부(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위원장)
15:30	주제발표 2	황태종 신부(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15:50	주제발표 3	김태원 신부(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16:10	휴식	
16:20	[2부 생태사도직단체 하늘땅물벗의 조직과 확산]	
	주제발표 1	정성일 신부(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16:40	주제발표 2	홍태희 위원(서울대교구 하늘땅물벗 반석벗)
17:00	질의응답 및 정리	

차 례

시작기도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	4
[1부]			
주제발표1	김승한 신부(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위원장)	-----	5
주제발표2	황태종 신부(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	19
주제발표3	김태원 신부(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	22
[2부]			
주제발표1	홍태희 위원(서울대교구 하늘땅물벗 반석벗)	-----	47
주제발표2	정성일 신부(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	66
첨부	인천교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95
마침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	152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 4 -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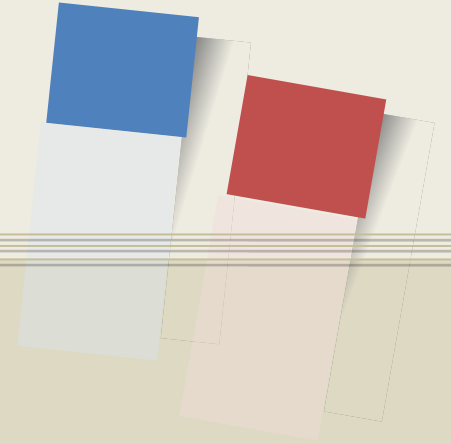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Laudato Si'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준비와 계획

김승한 신부(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위원장)

의정부 교구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



개요



- ❑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가르침을 널리 알린다.
- ❑ 7년 여정에 따른 계획 수립
- ❑ 교구, 본당, 가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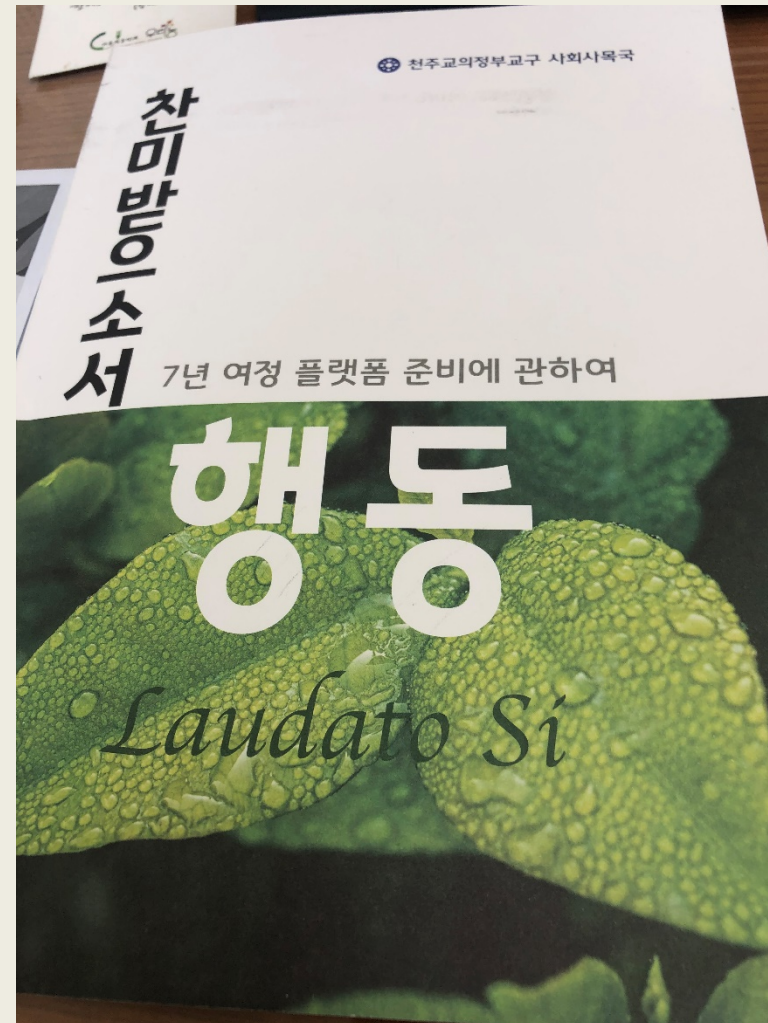


- ❑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
- ❑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
- ❑ 신앙인들의 예언자적 모범



진행 과정(단계)

- 준비 단계
찬미 받으소서 책자 제작
(2020,05~2021,05)
- 제작 과정
- 책자의 구성과 특징
- 책자 배부



의정부 교구 7년 여정 개막 미사

- 입장 시 환경을 위한 기도 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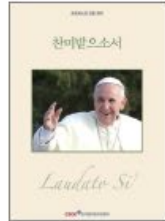


의정부 교구 7년 여정 개막 미사

- ◆ 미사 전 환경 관련 동영상 시청
- ◆ 주교님 강론
- ◆ 실행 제안(가정 & 본당)
- ◆ 구호 제창
(찬미 받으소서 행동합니다.
찬미 받으소서 동행합니다.)
- ◆ 기념품 증정
- ◆ # 기념 미사 동영상 :
<https://youtu.be/ePnXsHCVdhM>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많은 도시들은 거대하며 비효율적인 체계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와 물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44항).
그리하여 건강의 측면에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되고 일부 특권층을 위하여 보존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과의 접촉이 제한됩니다(45항).

문화와 적절한 통솔력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 형태를 기꺼이 바꾸려는 마음이 부족합니다(59항).
그러하기에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남겨주고 싶습니까?(160항)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환경만을 따로 떼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와 환경의 계약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환경 교육은 행동과 일상 습관, 곧 물 절약, 쓰레기 분리 수거, 나아가 "필요 없는 전등의 소등"(211항) 또는 난방비 절약을 위한 따뜻한 옷 입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211항).

아래의 유튜브와 QR코드로 방문하세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gstKMDUUSg>

※ 이 인쇄물은 재생용지를 사용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의 여정 “행동” 제안



본당과 가정에서
생태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작은 실천과 작은 나눔의
‘행동’입니다.

Catholic 신자(개인·가정)들에게 드리는 행동 제안



탄소포인트제 가입 운동

“우리가 실천하는 탄소포인트제가
살기좋은 자구를 만듭니다.”

탄소 포인트제란?

가정·상업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탄소 포인트 산정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 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부여

인센티브 지급 방법

1년에 2회(6,12월)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상품권, 종량제봉투 등으로 지급**



탄소포인트제 가입 절차

인터넷 신청 www.cpoint.or.kr



서면 신청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Catholic 본당에 드리는 행동 제안



아끼GO 나누GO 운동

“에너지를 아끼면 환경을 아끼고,
내 이웃을 아끼게 됩니다.”

매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과 요금을 기록하여 **지출 비용의 1%를 기금**으로 모음.

탄소 사용 및 절감 기금은 사목회나 사회사목 분과와 협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한 실천
_ “찬미받으소서 행동” 책자 12-13쪽 참조



에너지 사용 현황판 제작

“본당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현황판으로 제작,
신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월	전기		수도		가스		비고
	평균	현재	평균	현재	평균	현재	
1월	00wh/00원	00wh/00원	00ℓ /00원	00ℓ /00원	00MJ/00원	00MJ/00원	
2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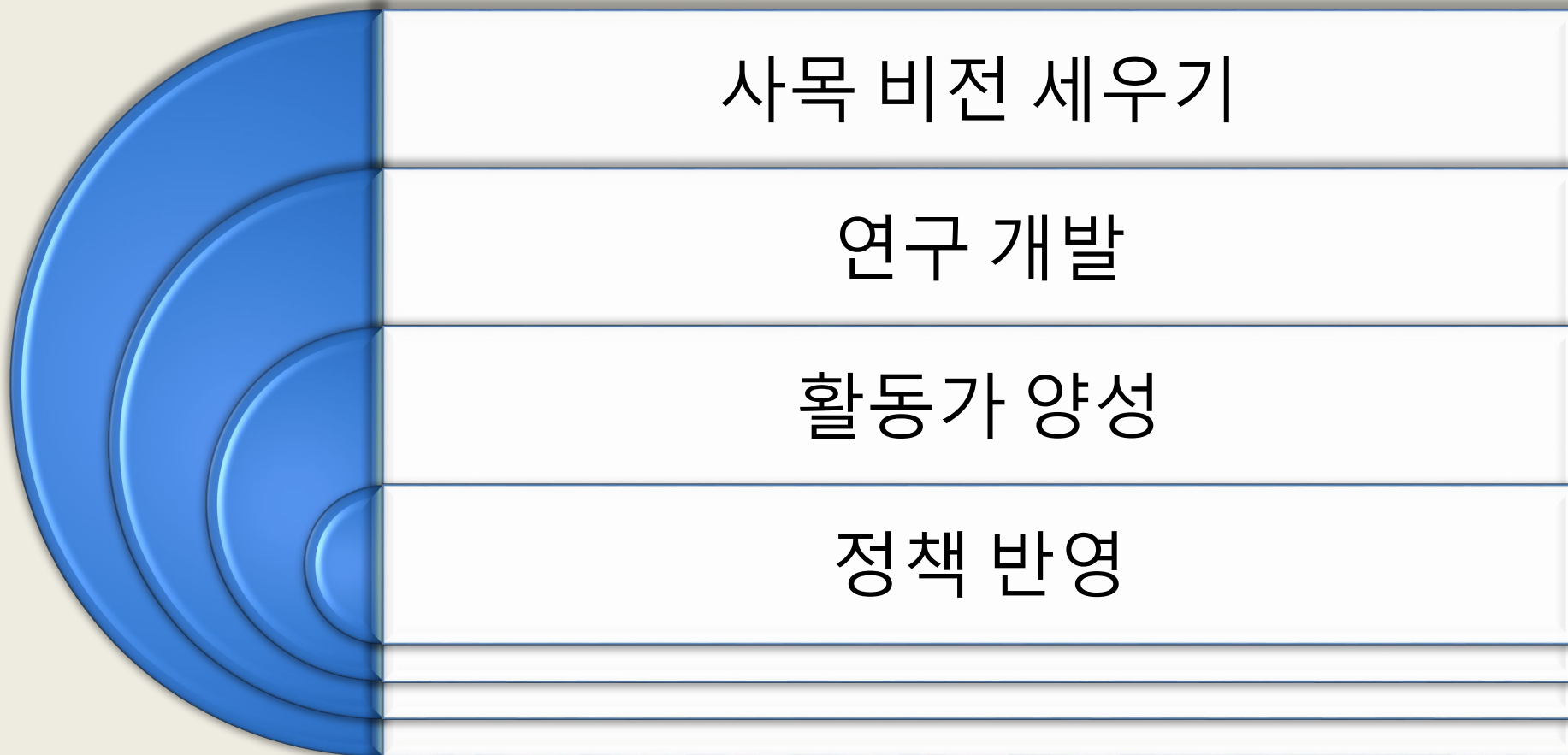
본당에서 현황판을 제작해서 함께 눈으로 보면서 실천하면 도움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모은 포인트를 본당 기금에 포함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진행과정(단계)

□ 연구 단계 (2021,05~2021, 12)





진행과정(단계)

□ 7년 여정 적용

2021년 : 특별 주년과 준비의 해

2022년 : 사목 비전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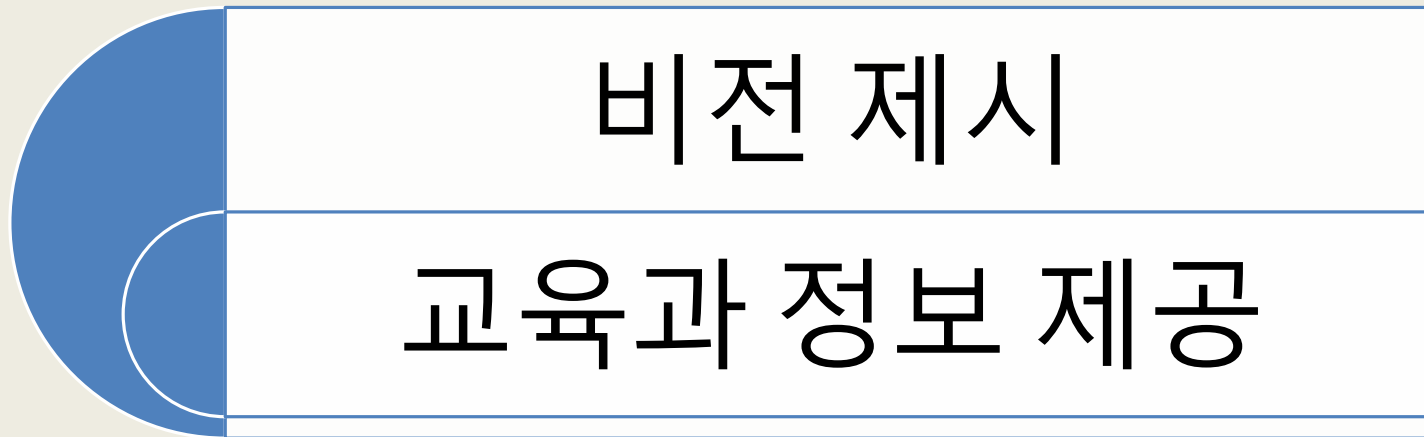
2023년 : 미정

~ 2027년 :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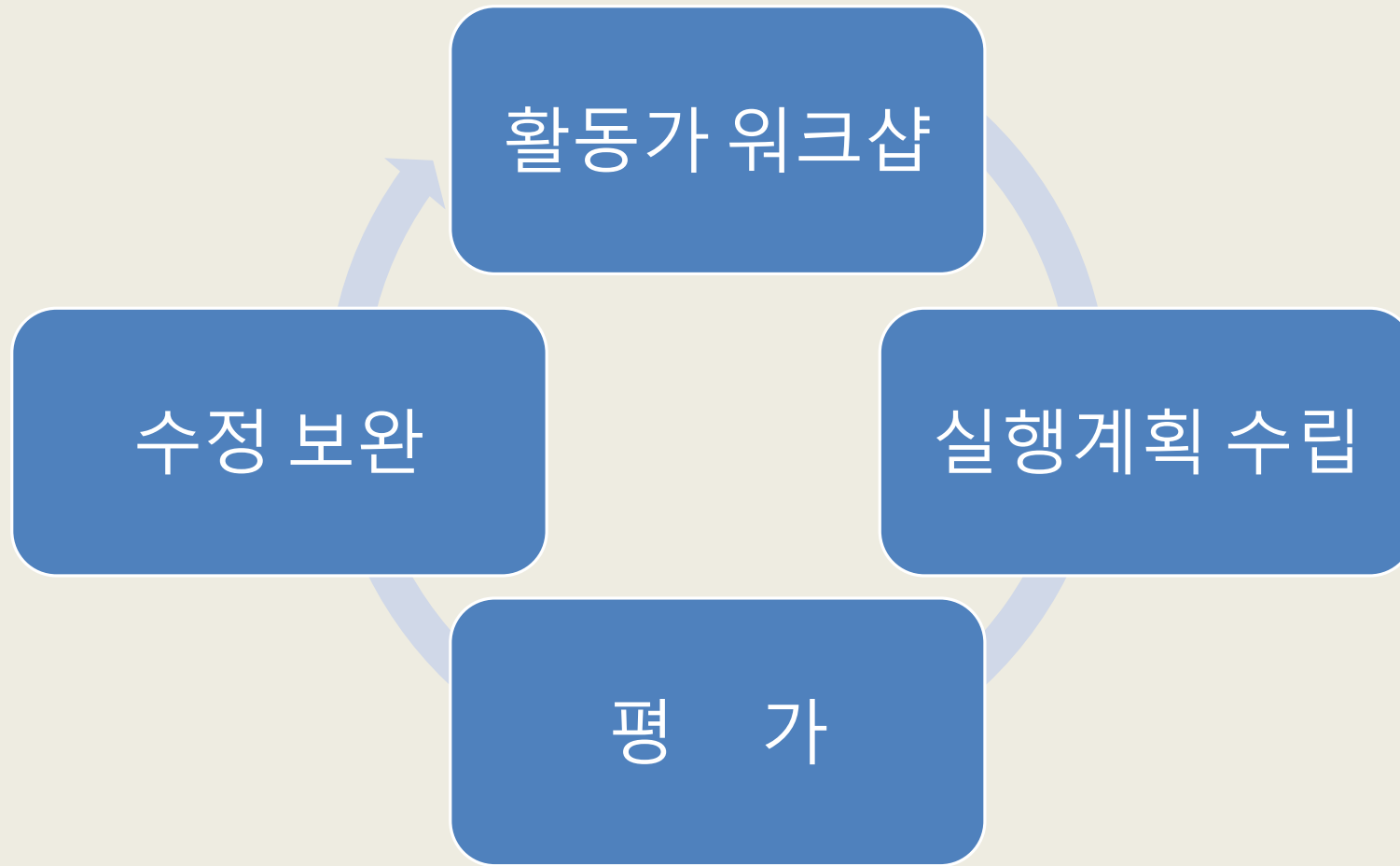
7년 여정 적용 방식

□ 교구의 역할





□ 진행 과정





기 타



다양한 캠페인 제안

친환경 평가 기준 제시

모범 본당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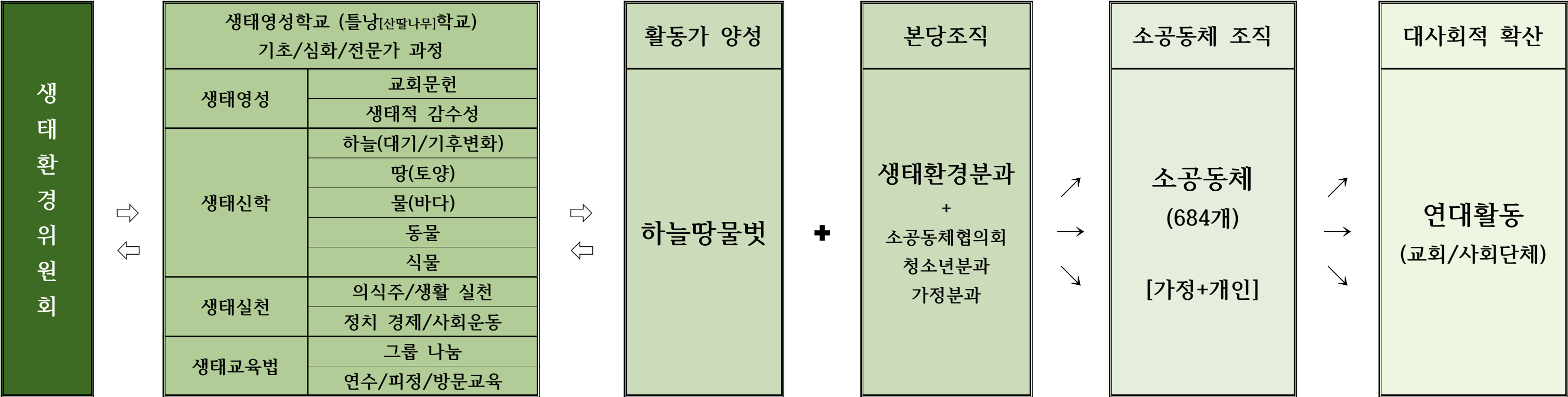
친환경 대회 개최

환경 관련 콘텐츠 제작 및 공유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준비와 계획
황태종 신부(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 제주교구 생태환경 위원회 7년 계획: [팀 양성 - 매뉴얼 정립 - 시스템 구축] ⇨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하여 생태적 회개의 삶을 실천하고 이웃에 전하는 하느님 백성”

계획 공동체		본당(31) 소공동체(684)	하늘땅 물벗 (촉진팀)			환경분과 모임 (봉사자)		활동 목표														연대활동				
			교구팀	지구팀	본당팀	교구모임	지구모임	본당		생태영성		생태신학		생태실천				생태교육				소공동체	교회단체		사회단체	
								인원	활동	문헌	감수성	기후	오염	구조	개인	가정	소공	본당	가정	소공	본당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시 서 부 지 구	중앙	× 0명	/×	◎	× 0명	0	×	①	×	①	①	×	①	②	①	①	×	×	①	×	주교회의 생태위	○	녹색연합	△	
		서문		/×			2	②	②	×	①	①	×	①	②	×	②	×	×	②	×					
		신제주		/×			2	②	①	×	①	①	×	①	①	×	①	×	×	①	×					
		연동		/×			2	①	①	×	①	①	×	①	①	×	①	×	×	①	×					
		노형		/×			2	①	②	×	①	②	×	①	①	×	②	×	×	②	×					
		정난주		/×			1	①	②	×	①	②	×	①	①	①	②	×	×	②	×					
		하귀		/×			1	①	①	×	①	①	×	①	①	①	①	×	×	①	×					
	시 동 부 지 구	동문	× 0명	/×	◎	× 0명	2	①	①	×	①	①	×	①	①	×	①	×	×	①	×					
		광양		/×			2	①	①	×	①	①	×	①	①	①	①	×	×	①	×					
		동광		/×			2	②	②	×	②	②	×	③	②	①	②	×	×	②	×					
		김기량		/×			2	②	②	×	①	②	①	③	②	①	②	×	×	②	×					
		화북		15/②			2	③	③	×	①	②	①	②	①	①	③	×	×	②	×					
		조천		/×			2	①	②	×	①	①	×	①	①	①	②	×	×	②	×					
		김녕		/×			0	×	①	×	①	①	×	①	①	×	①	×	×	①	×					
	서 부 지 구	세화	승격	/×	45명	× 0명	0	×	①	×	×	①	×	①	①	×	①	×	×	①	×					
		애월	0명	× 0명			1	①	②	×	①	①	×	①	①	①	①	×	×	①	×					
		한림	/×				2	①	②	×	①	①	×	①	①	①	①	×	×	①	×					
		신창	/×				1	①	×	×	×	①	×	①	①	×	①	×	×	①	×					
		고산	/×				0	×	①	×	×	×	①	①	×	①	×	×	①	×						
		금악	/×				0	×	×	×	×	①	×	①	①	×	①	×	×	①	×					
		모슬포	/×				1	①	②	×	①	①	×	①	①	×	①	×	×	①	×					
	남 부 지 구	화순	× 0명	/×	◎	× 0명	2	③	②	×	①	②	×	①	①	①	②	×	×	②	×					
		서귀포		/×			2	①	②	×	①	①	×	①	①	①	①	×	×	②	×					
		서귀북자		/×			2	②	②	×	①	①	×	①	①	×	②	×	×	②	①					
		중문		30/②			2	③	③	×	②	②	①	②	②	②	③	×	×	②	①					
		새서귀포		/×																						
		효돈		/×			× 0명	1	①	①	×	①	①	×	①	①	×	①	×	×	①					×
		남원		/×				1	①	①	×	①	①	×	①	①	×	①	×	×	①					×
	표선	/×	1	①	①	×		①	①	×	①	①	×	①	×	×	①	×								
	성산포	/×	1	①	①	×		①	①	×	①	①	×	①	×	×	①	×								
	우도(준)	승격	/×	승격	0	×	①	×	×	①	×	①	×	×	①	×	×	①	×							
목표 달성 현황			0%	0%	4%	81%	0%	81%	38%	80%	0%	40%	39%	3%	40%	37%	15%	46%	0%	0%	44%	2%	4개		0개	
활동 평가	×	활동 없음	[분기모임]	[월모임]	[주모임]	[분기모임]	[월모임]	[주모임]	[교육매뉴얼]	[교육매뉴얼]	[교육매뉴얼]			[교육매뉴얼]			[매뉴얼]	• 사회사목위 협력 (생태위기취약계층) 실업,자영,농수산 • 가정 사목과 협력 가정폭력, 이혼위기		• 사회사목위 협력						
	①	기초	• 틀남학교 영성교육① 신학교육①	• 지구 연수× 세미나×	• 본당/SCC 연수① 세미나×	• 교구 조직운영① 연대활동×	• 지구 조직운영× 보호활동×	• 본당/SCC 조직운영② 보호활동①	문헌연구① 감수성교육×	기후×/대기× 수질×/토양× 폐기물×	개인① 소공동체① 본당①	SCC나눔교육× 본당교육① •그룹나눔×	나눔지× SCC/GR×													
	②	심화	실천교육① 양성교육①	현장교육×	피정×	현장활동×	현장활동① 연대활동×	경제×	경제×	가정(가정사목위) 청소년(청사위)	•연수×/피정×	•현장방문① 가정교육×	방문교육×													
	③	전문화		연구활동×	방문교육① 연구활동×	연대활동×	정치×			청소년교육①	리플릿①															
7년 여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 틀남학교 3기 운영 • 하늘땅물벗 5개 본당 창설 • 활동가·분과·소공동체연결 10% • 본당 자체 활동 • 틀남학교 체계 보완		• 틀남학교 4기, 5기 • 하늘땅물벗 10개 본당 설립 • 활동가·분과·소공동체연결 25% • 본당 자체 교육/활동 • 활동가와 소공동체와 연결노력		• 틀남학교 6기, 7기 • 틀남학교 심화과정 1기 • 하늘땅물벗 15개 본당 설립 • 활동가·분과·소공동체연결 40% • 본당·소공동체 자체 교육/활동		• 틀남학교 8기 • 하늘땅물벗 20개 본당 설립 • 활동가·분과·소공동체연결 60% • 본당 자체적인 평신도 생태교육 • 본당·소공동체·지역사회 활동		• 틀남학교 9기 • 틀남학교 심화 2기 • 하늘땅물벗 25개 본당 설립 • 활동가·분과·소공동체연결 70% • 소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연대		• 틀남학교 10기 • 틀남학교 전문가 과정 1기 • 하늘땅물벗 27개 본당 설립 • 활동가·분과·소공동체연결 80% • 평신도에 의한 생태전문가양성		• 틀남학교 11기 • 틀남학교 심화 3기 • 하늘땅물벗 29개 본당 설립 • 활동가·분과·소공동체연결 90% • 평신도에 의한 교육·활동 확산		• 틀남학교 12기 • 틀남학교 전문가과정 2기 • 하늘땅물벗 31개 본당 설립 • 활동가·분과·소공동체연결 100% • 팀·시스템에 의한 지속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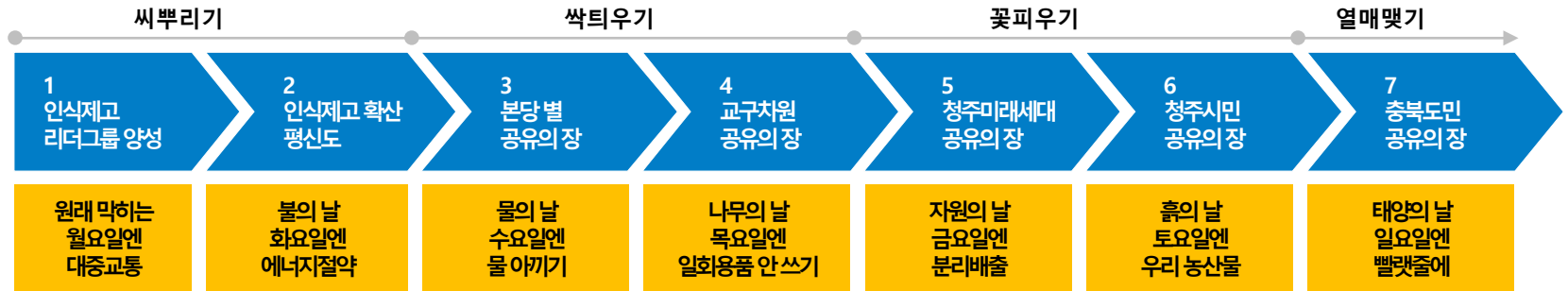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준비와 계획
김태원 신부(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7년 여정

'모든 생명체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생태환경 실천 제안

- 목 적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5년에 반포하신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찬미받으소서』의 전망 안에서 교황님의 뜻을 따라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고자 함
- 대 상 청주지역(1만 교구직원, 17만 신자, 78개 성당)을 중심으로 가정, 본당, 교구, 그리고 미래세대 → 충청지역 확산
청주시 관내 초등학교(93개교 48,000여명), 중학교(46개교 20,000여명), 고등학교(37개교 23,000여명) 대상
- 협조기관 천주교 청주교구, 충청북도청,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지역 기업, 에코맘코리아
- 7년 여정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 365에코라이프



대 상	1년차	2년차	3~7년차
교구	주교님 7년간의 여정선포 주요 메시지 선포 교리신학원 환경학교 개설(에코닥터 과정) 인증 자격증 부여(에코맘코리아 공동) 사제 및 교구직원 인식제고 교육 7년여정 위원회(가칭) 생태환경위원회 중심의 전담기구 구축	교리신학원 환경학교 운영(에코닥터 과정 보수) 캠페인 실천 및 전년 결과 공유(책자, 영상, 포럼 등) 에코 히어로상(가칭) 제정 및 시상	천주교 전 신자 연간 캠페인 누적 참여 -2년 차에 1년차 포함 누적 실천
본당	7년여정 전담분과 출범 분과별 FG 및 공감대 형성 7년 여정의 주제별 실천방안 정하기 교리신학원 연계한 예비 에코닥터 추천 7년여정 활동계획 및 실천 워크숍(위원회별/전체신자/주일학교 대상)	에코닥터 분과별 평신도 교육(회개기도, 실천) 에코닥터 본당 교육프로그램 연계 교육 연간 캠페인 실천	캠페인 실천 및 전년 결과 공유의장 마련 책자 영상 포럼 생태장터
가정	교육 참여 및 가정에서 실천하기	연간 캠페인 실천(회개기도, 실천)	
사회/미래세대	지역 청소년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주교구 신자 에코닥터로 양성	지역 청소년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시행 청주교구 신자 에코닥터로 현장투입(청년 일자리 연계)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확산 충청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7년 여정

‘모든 생명체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생태환경 실천 제안



7년 여정 목차

+ 기후위기와 향후 7년

+ 개요

+ 프로세스

+ 연간 캠페인

+ 주요 프로그램

+ 기대효과

+ 성과지표

글로벌 최대 위험

- 1.기상이변
- 2.기후변화대응 실패
- 3.자연재해
- 4.생물 다양성 손실
5. 인간 유발 환경재난
-
-
10. 전염병

“10년 내 닥칠 위험은 모두
기후변화, 생태계붕괴 등 환경과 연관”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 닥친 기후위기





**“향후 10년 내 탄소배출량을 반으로 줄이는 등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

지구생태용량의 한계는 온실가스 4200억 t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0)

2100년까지 평균기온 상승 1.5 °C 이하로 제한



출처: The Countdown 2° Clock / 2021년 1월 15일 현재

1.5°C 를 위한 탄소시계 _ 7년

기후변화 싱크탱크 MCC 에 따르면 2021년 1월 현재 1.5°C상승까지 약 7년 남음
지금 속도라면 7년 후 1.5°C상승에 해당하는 4,200톤이 모두 배출됨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7년 여정

‘모든 생명체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생태환경 실천 제안



- ✦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반포하신 ‘찬미받으소서’의 전망안에서
-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주도적 동참 의지로
- ✦ 천주교구가 선도적으로 로드맵을 제안하고
- ✦ 교구, 본당, 가정, 사회공동체별 실천방안 구체화 및 확산



생태환경위원회 중심의 교구, 본당, 청소년 별 전담조직 구축

전담조직이 활동방향, 내용 등을 본당내 여러 모임(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7년 여정을 향해함





- 도민 포럼, 워크숍, 생태장터 등 공동주최
- 미래세대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재원확보

충북
도청

에코맘
코리아

- 청주교구 환경학교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에코닥터 양성
- 미래세대 생태환경 프로그램 기획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형태)

청주교구

- 7년 여정 로드맵
- 전담기구 체계화 및 조직화
- 환경학교 개설 및 에코닥터 양성
- 전 신도 교육 및 캠페인 참여 독려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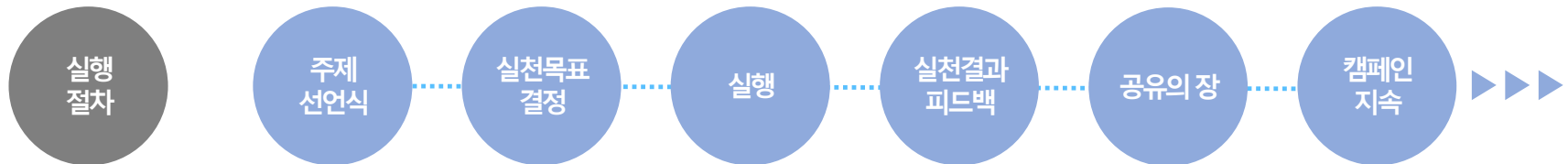
충북
교육청

- 지역사회 대상 기업 CSR활동
- 미래세대 생태환경 프로그램 후원

- 미래세대 생태환경 프로그램 관내 홍보
- 교육 대상자 선발
- 미래세대 대상 포럼 공동주최



※ 해마다 더 집중할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및 독려를 위해 청주교구가 환경상을 시상하는 등 활동





1 년차

인식제고 리더그룹 양성

- 청주교구 환경학교 개설(교리신학원내)
- 에코닥터 양성
- 사제 및 교구직원 인식제고 교육
- FGI 및 공감대 형성 (본당 분과리더 중심 / 교구내 본당 평신도 대표 대상)
- 1년차 집중 주제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 도출
- 교구, 본당, 가정 차원의 실천
- 본당 별 오피니언 리더(직원 및 위원회 등 주요모임)대상 워크숍 또는 교육 실시

2 년차

인식제고 확산_평신도

- 청주교구 환경학교 **운영**
- 에코닥터 양성 **및 보수교육**
- 장년 에코닥터 : **평신도 대상 성당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투입**
- 청년 에코닥터 : **청소년 대상 학교 생태환경프로그램 교육투입, 본당 주일학교 대상 교육**
- FGI 및 공감대 형성 (본당 분과리더 중심 / 교구내 본당 평신도 대표 대상)
- **2년차 집중** 주제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 도출
- 1년차 주제에 따른 **실천결과 공유**
- 교구, 본당, 가정 차원의 실천
- 본당 별 오피니언 리더(직원 및 위원회 등 주요모임)대상 워크숍 또는 교육 실시



3년차

본당차원 공유의 장

- 청주교구 환경학교 운영 및 에코닥터 양성 및 보수교육
- 장년 에코닥터 : 평신도 대상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투입
- 청년 에코닥터 : 청소년 대상 학교 생태환경프로그램 교육투입, 본당 주일학교 대상 교육
- 3년차 집중주제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 도출
- 1~2년차 주제에 따른 실천결과 공유
- 교구, 본당, 가정 차원의 실천
- 본당 별 오피니언 리더(직원 및 위원회 등 주요모임)대상 워크숍 또는 교육 실시
- 본당 차원 공유의 장 : 책자, 영상, 포럼(청소년,평신도) 생태장터 등

4년차

교구차원 공유의 장

- 청주교구 환경학교 운영 및 에코닥터 양성 및 보수교육
- 장년 에코닥터 : 평신도 대상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투입
- 청년 에코닥터 : 청소년 대상 학교 생태환경프로그램 교육투입, 본당 주일학교 대상 교육
- 4년차 집중주제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 도출
- 1~3년차 주제에 따른 실천결과 공유
- 교구, 본당, 가정 차원의 실천
- 본당 별 오피니언 리더(직원 및 위원회 등 주요모임)대상 워크숍 또는 교육 실시
- 교구 차원 공유의 장 : 책자, 영상, 포럼(청소년,평신도) 생태장터 등



5년차

청주 미래세대 공유의 장

- 청주교구 환경학교 운영 및 에코닥터 양성 및 보수교육
- 장년 에코닥터 : 평신도 대상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투입
- 청년 에코닥터 : 청소년 대상 학교 생태환경프로그램 교육투입, 본당 주일학교 대상 교육
- 5년차 집중주제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 도출
- 1~4년차 주제에 따른 실천결과 공유
- 가정, 본당, 교구, 사회 차원의 실천
- 본당 별 오피니언 리더(직원 및 위원회 등 주요모임)대상 워크숍 또는 교육 실시
- 청주 미래세대 차원 공유의 장 : 책자, 영상, 포럼(청소년,평신도) 생태장터 등

6년차

청주시민 공유의장

- 청주교구 환경학교 운영 및 에코닥터 양성 및 보수교육
- 장년 에코닥터 : 평신도 대상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투입
- 청년 에코닥터 : 청소년 대상 학교 생태환경프로그램 교육투입, 본당 주일학교 대상 교육
- 6년차 집중주제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 도출
- 1~5년차 주제에 따른 실천결과 공유
- 가정, 본당, 교구, 사회 차원의 실천
- 본당 별 오피니언 리더(직원 및 위원회 등 주요모임)대상 워크숍 또는 교육 실시
- 청주시민 차원 공유의 장 : 책자, 영상, 포럼(청소년,평신도) 생태장터 등



7 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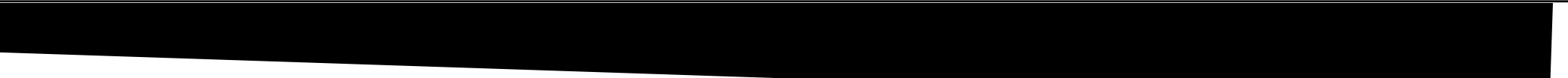
충북도민 공유의 장

- 청주교구 환경학교 운영 및 에코닥터 양성 및 보수교육
- 장년 에코닥터 : 평신도 대상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투입
- 청년 에코닥터 : 청소년 대상 학교 생태환경프로그램 교육투입, 본당 주일학교 대상 교육
- 7년차 집중 주제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 도출
- 1~6년차 주제에 따른 실천결과 공유
- 교구, 본당, 가정 차원의 실천
- 본당 별 오피니언 리더(직원 및 위원회 등 주요모임)대상 워크숍 또는 교육 실시
- 충북도민 차원 공유의 장 : 책자, 영상, 포럼(청소년,평신도) 생태장터 등



1주일 단위로 실천하되, 매년 1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누적 실천

	요일별 캠페인	실천 항목 사례	인식제고 키워드
月	▪ 원래 막히는 월요일엔 대중교통을	• 대중교통과 전기자동차 이용하기 • 공회전 안하기	• 2050 넷제로를 향한 탄소배출량 줄이기 • 미세먼지 줄이기
火	▪ 불이 날 화요일엔 에너지 절약	•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전등 끄기 •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	•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기인한 기후위기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총 사용량 줄이기
水	▪ 물의 날 수요일엔 물 아껴 쓰기	• 양치 컵 쓰기 • 비누칠 할 때 물 잠그기	• 빌려 쓰는 생명의 물 • 의식주 관련된 제품 생산과 물
木	▪ 나무의 날 목요일엔 일회용품 안 쓰기	• 플라스틱 다이어트 하기 • 일회용품 다이어트 하기	•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의 훼손
金	▪ 자원의 날 금요일엔 분리배출을	• 올바른 분리배출 •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로 쓰레기 줄이기	• 지속가능한 녹색소비 • 제품생애주기와 자원순환
土	▪ 흙의 날 토요일엔 우리 농산물 먹기	• 고기 없는 토요 식탁(금육제) • 우리농산물 먹기	• 공장식 가축사육, 식량을 위한 자연훼손과 팬데믹 •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日	▪ 태양의 날 일요일엔 빨래는 빨랫줄에	• 빨래 자연 건조하기 • 공기청정기대신 환기하기	• 창조질서 회복과 자연의 고마움 • 2050 넷제로와 재생 에너지



연간 캠페인 적용 1_ 불의 날 화요일엔 에너지 절약



항목	실천 방안
• 공동의 집 전등 끄기	• 전 신도 화요일 밤 9시부터 5분간 <전등 끄기> 캠페인 • 빈 공간 전등 끄기
• 공동의 집 적정온도	• 여름철 26도, 겨울철 18도 적정온도 지키기 • 겨울철 내복 입기 • 겨울철 단열재 활용하기
• 플러그 뽑기	• 개별 절전형 멀티탭 사용하기 • 사무실 돌아보기 (점심시간 소등, 모니터 끄기 등)
• 에너지 효율 높이기	•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등급 확인하고 1등급 제품 구매하기 • 냉장고 꽉 채우지 않기, 자주 여닫지 않기 • 안 쓰는 가전제품 나눠 쓰기 혹은 중고거래
• 모바일 다이어트	• 안 쓰는 앱 정리하기 • 스트리밍 줄이기 • 저장 용량 정리하고 줄이기
• 공유의 장	•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 사례 _ 책자 영상 만들기 • <기후위기와 에너지> 포럼

연간 캠페인 적용 2_ 나무의 날 목요일엔 일회용품 안 쓰기



항목	실천 방안
과대포장 다이어트	- 본당에서 장바구니를 만들어 전신도가 사용하기 (캠페인 문구 인쇄로 홍보효과) - 자기 그릇 가져가서 장보기 -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에 대한 의견을 목소리 내기 (관, 기업, 언론에 편지쓰기)
일회용품 다이어트	- 텀블러 사용하기 - 배달음식에서 숟가락 젓가락 안받기 - 다회용품 사용하기(빨대, - 배달 혹은 상품에 따라온 일회용품 구매처에 반납하기 (빨대, 나무젓가락, 옷걸이 등) - 플라스틱 대체품 사용하기
플라스틱 대체품 사용하기	- 주방용품 바꿔보기 (비닐랩→밀랍랩, 세제→소프넛, 수세미→천연수세미, 지퍼락→실리콘 등) - 사무실 돌아보기 (개인 머그컵 사용, 커피캡슐→리필캡슐, 물티슈→빨아쓰는 종이행주 등)
플라스틱 분리배출	- 재질 별 분리배출 방법 알고 실천하기 - 재활용 용이한 단일소재 플라스틱제품 생산 요구하기 (기업에 목소리 내기)
미세 플라스틱 다이어트	- 스티로폼 안 받기 - 세제 및 섬유유연제 미세플라스틱 함유제품 거부하기
공유의 장	-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천 사례_ 책자 영상 만들기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공동의 집 구하기> 포럼

주요 프로그램 _ 생태환경학교 에코닥터



과정	교육대상	프로그램 특징	역할
Track 1 평신도와 함께!	중 장년 분과 리더	에코닥터(평신도 대상 강사) 양성과정 -생태환경,순환경제,녹색소비,에너지,물,쓰레기 등 주제 -게임, 영상, 교구, 워크북, 교육론 등 프로그램 -이수 후 에코닥터 자격증부여	▪ 본당 분과별 평신도 환경교육 강의 ▪ 본당 중장년 주제별 실천을 주도
Track 2 미래세대와 함께!	2040 청년 신도	에코닥터(미래세대 대상 강사) 양성과정 -생태환경,순환경제,녹색소비,에너지,물,쓰레기 등 주제 -게임, 영상, 교구, 워크북, 교육론 등 프로그램 -이수 후 에코닥터 자격증부여 -미래세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실습	▪ 지역 미래세대 생태환경교육 강의 (학교로 찾아가는 형태) ▪ 본당 주일학교 주제별 실천을 주도



*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_ 공유의 장



분류	대상	프로그램 특징	예시
책자	-	실천성과 사례를 글과 사진으로 공유, 홍보, 확산	7년 여정(가칭)잡지창간
영상	-	실천독려 및 성과를 영상으로 홍보, 확산	지구를 위해 여기까지 해봤다(가칭) 시리즈 이렇게 해봐요(시리즈)
포럼	평신도, 미래세대, 도민 별	전문가 초청강연을 통한 인식제고 및 실천 사례공유	천주교 생태환경포럼 미래세대 지속가능세계포럼
워크숍	본당, 분과위 별	인식제고 및 공감대형성, 실천목표 논의 및 결정	
생태장터	본당, 시민, 도민 등	365에코라이프를 체험하는 생태장터	제로웨이스트 장터 플라스틱 프리 장터



* 이미징 45 예시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_ 미래세대 생태환경교육 사례



1_ 빌려쓰는 지구스쿨

학교로 찾아가는 친환경 습관교육
2015년부터 서울 및 경기 및 충남지역 중학생 약 50,000여 명 교육

2_ 꿈과 끼를 찾는 SL드림스쿨

자원순환과 쓰레기를 주제로 진행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2018년부터 인천 지역 28개교 1,746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

3_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스쿨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해결의 주체인 미래세대에게
MIT시스템 사고 등을 통해 바른 에너지 사용을 인식시키는 프로그램
2020년 1,000여명 시범교육, 매년 6,000명 교육 예정

4_ 글로벌에코리더

UNEP, 환경부와 함께 하는 1년 과정의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10년간 약 4,300명의 초/중/고등학생 에코리더 및 300여 명의 대학생멘토 양성

5_ UN청소년환경총회

경쟁대신 토론과소통으로 UN과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환경총회
2013년 이래 2,3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각국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
반기문 제 8대 유엔 사무총장 외 UNEP, WUFNA, 외교부, 환경부, 각국 대사관 등이 후원

6_ 생물다양성 청소년 리더

환경부와 함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1년 과정 프로젝트
2015년 이래 1,800여 명의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를 양성





- +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간의 여정 실천지침 마련!**
교황님의 뜻에 따라 [찬미 받으소서]의 전망과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안에서
- +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는 천주교인의 신앙심과 자부심 고취!**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의 단합된 실천과 협력으로 창조질서회복에 기여
- + 환경적 가치와 세계시민 정신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정부에서 그린뉴딜과 순환경제, 친환경소비관련 교육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 50만명 중 환경교사 28명 현실, 따라서 외부단체 및 NGO의 환경수업이 필요함
- + 2050 넷제로를 향한 사회공헌 부문에서 차별화된 성과 가능!**
사회적 책임과 가치창출에 대한 천주교의 선한 영향력
- + 천주교구 청년일자리창출!**
천주교 2040을 지역사회 미래세대 생태환경교육 전문가로 양성하여 그린뉴딜 일자리창출



- + 사제 및 교구 직원, 평신도 7년간의 여정 참여인원수**
교육 참여인원수, 캠페인 참여 인원수, 포럼 및 워크숍 참여 인원수, 생태장터 참여인원수
- + 캠페인 성과 측정**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 365에코라이프 실천결과 정량적 정성적 측정
- + 커뮤니케이션 성과측정**
보도자료, SNS캠페인(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노출 및 '좋아요' 수
- + 지역사회 미래세대 교육참여 인원수**
지역사회 미래세대 대상 생태환경교육(자유학년제, 워크숍, 포럼 등) 학교수 및 수혜인원수
- + 에코닥터 양성과정 이수자수**
환경학교 에코닥터 과정 수료 및 자격증 취득인원

생태사도직단체 하늘땅물벗의 조직과 확산

홍태희 위원(서울대학교구 하늘땅물벗 반석벗)

하늘·땅·물·벗

Friends of Heaven, Earth and Water

2021. 6월

서울대학교 평신도 사도직단체

설립 배경과 취지

- **시대적 표징에 응답하는 신앙**
 - 기후 위기, 멸종 생물의 증가: 생물 다양성의 위기
 - 인간 중심의 산업문명: 자연 생태계를 복음이 전하는 가난한 자로 인식
 - 창조물에 현존하며 구원하시는 하느님 창조 질서 보존
-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는 사도직 운동**
 - 자연의 돌봄과 창조질서 보존: 신앙적 실천
 - 본당 혹은 교회 연관 단체에서의 소공동체 생태 사도직
 - 일상의 생활과 일터 및 직업을 통하여 '생태적 회심'을 실천
-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대한 응답**
 - 2015년 6월 18일 회칙 반포 → 사도직 단체의 필요성 논의 → 2016년 9월 설립
 - 모든 창조물의 고유한 가치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세계 공동체
 -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등 인간 문명의 전분야를 통한 통합적 발전 지향

생태 사도직 “하늘땅물벗”

● “하늘땅물벗”의 사명:

“하늘땅물벗”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적 책임을 실천하는 생태사도직 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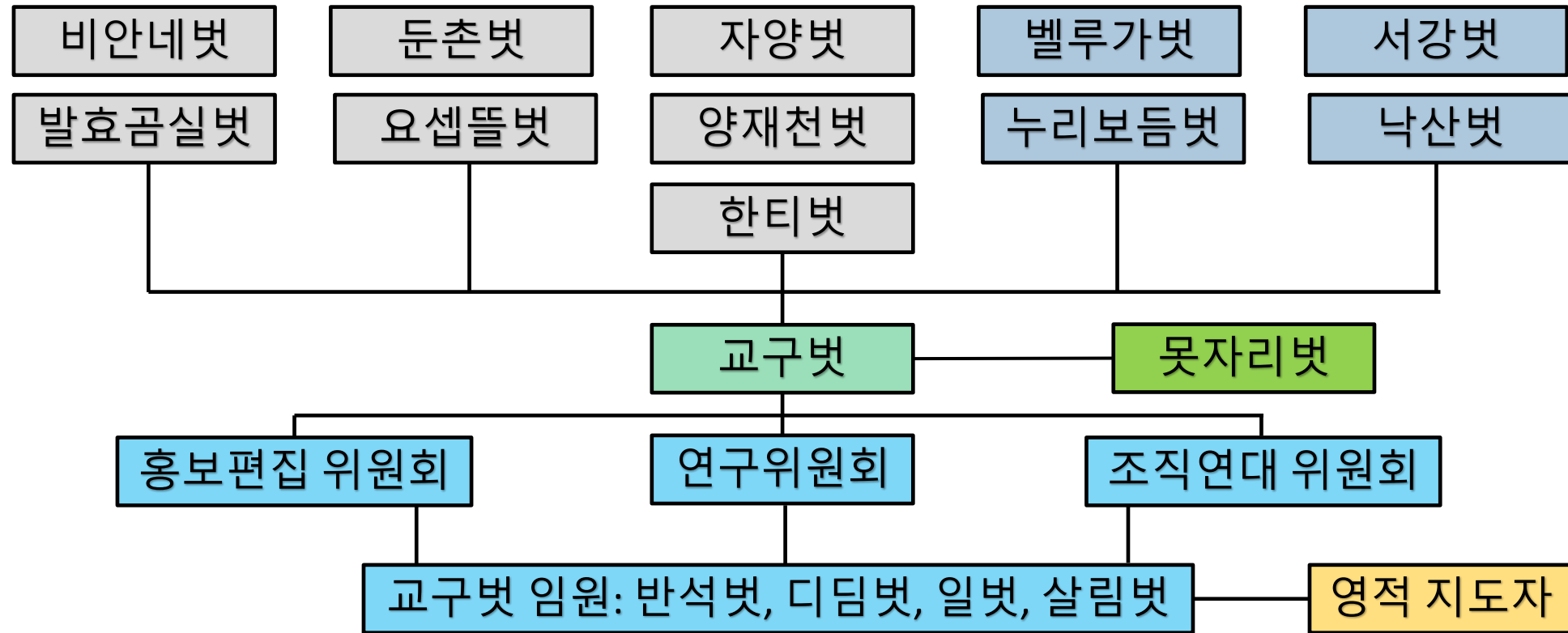
창조질서 보전 활동에 대한 체험과 정보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생태사도직을 실천한다.

● 생태 사도직의 후보성인: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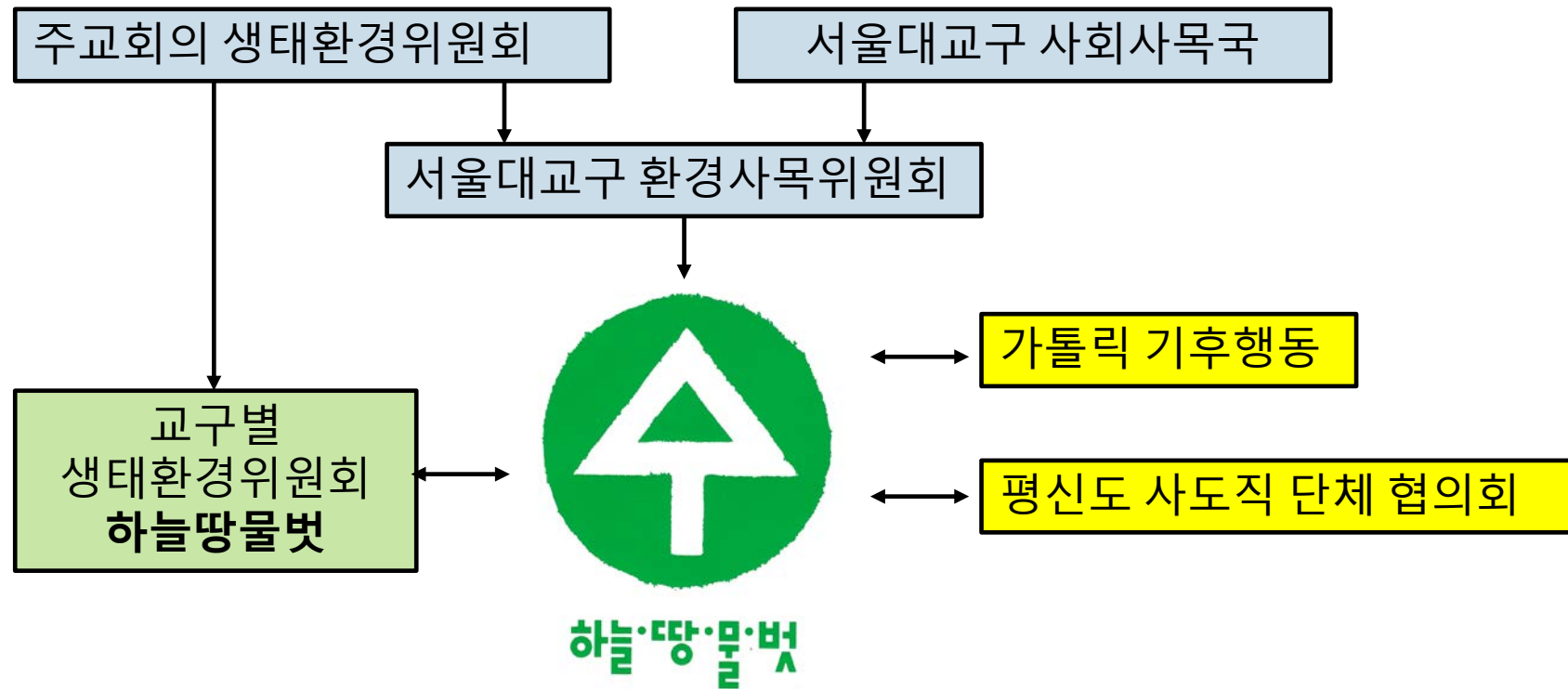
하늘땅물벗 설립 연혁

- 1991년: 생태 사도직을 위한 신자 모임 발족.
한마음운동본부 생활 실천부 '하늘땅물벗'
- 2016. 10. 4: 서울대교구 '하늘땅물벗' 창립- 영적지도자: 이재돈 신부
- 2017. 2. 1: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인준
- 2017년도: 비안네벗(홍은2동 본당), 벨루가벗(청년생태모임), 둔촌벗(둔촌동 본당)
서강벗(서강대 신학대학원), 발효곰실벗(포이동 본당) 발족
- 2018년도: 누리보듬벗(생태영성학교), 자양벗(자양동 본당), 낙산벗(가톨릭 대 신학대학)
- 2018. 8. 2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및 영적지도자: 백종연 신부 취임
- 2019년도: 성요셉뜰벗(오금성요셉 본당), 양재천벗(도곡동 본당) 발족
- 2020년도: 한티벗(대치2동 본당) 발족

조직 현황



서울대학교 하늘땅물벗





하늘·땅·물·벗

하늘땅물벗 활동

활동	구분	내용
벗 정기 모임	단위벗	2주에 1회 기준 / 대면 혹은 비대면
실천 활동	개인	소비, 에너지 사용, 쓰레기, 육식 줄이기...
	본당	녹색본당 이끔이, 아나바다, 우리농 협력, EM 나누기...
	일터	이면지 사용 등 소모품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순환 사업, 저연비 차량 사용...
시기별 활동	사순시기	초록회개를 위한 십자가의 길, 금육, 에너지 단식...
	창조시기	9월1일 - 10월 4일. 기도회, 캠페인, 특별 실천...
전체 모임	미사, 기도회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랜선 기도모임
	교육	생태영성학교, 심화연수 피정, 생태 탐방...

하늘땅물벼 정기 모임

- 벼 모임은 2주에 1회 추천.
- 대면 회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비대면 회합도 가능.
- 정기 모임 순서
 - 시작 기도 :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반부 혹은 자유롭게.
 - 전차 회의록 낭독, 회계 사항 승인, 회원 출석 확인, 신규 회원 소개 등
 - 성경 혹은 교회 가르침 봉독 :
 - 다양한 생태적 기도와 창조질서보전관련 강독 나눔 – 벼의 특성에 맞도록
 - 성찰 나누기
 - 생태 사도직 활동 보고: 개인과 단체
 - 안건 토의
 - 동반 사제 말씀 및 강복
 - 마침 기도: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후반부 혹은 자유롭게.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신앙 실천

버리는 문화에서 살리는 문화로!

- 불필요하고 과도한 소비 자제
-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임무
- 지구 살리기 운동: 대중교통, 친환경 먹거리, 에너지 줄이기 등

창조물 안에 살아 계신 하느님

- 본당 공동체에서의 활동 : '본당 활동 안내서' 참조
- 본당 에너지 사용 관리 활동: 불필요한 전기, 냉난방, 자동차 운행 등
- 아나바다 장터, 일회용품 자제, 친환경 농산물 거래

공동체를 향한 선교 :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 우리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창조물 보전 활동
- 하느님 뜻에 맞는 자연의 보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환경 오염원 감시 활동

연간 시기별 활동

- 사순시기: 생태적 회개를 위한 기도와 실천 (2/17-4/2)
 - '초록회개를 위한 창조보전 십자가의 길' (환경사목위원회)
- 창조 시기: 9월1일-10월 4일
 - 주교회의 주관 '피조물을 위한 미사' (9월 첫주)
 - 하늘땅물벗 기도회 (9월 중순)
- 하늘땅물벗 잔치 (총회): 10월 9일



녹색 사순 실천 프로그램_2021

일요일-창조주	월요일-하늘	화요일-땅	수요일-물	목요일-벗	금요일-금속 단식	토요일-모든 창조물
			2/17: 재의 수요일	2/18	2/19	2/20
* 본 하늘땅물벗 사순시기 프로그램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교회의 오랜 전통인 기도와 금제한 생활 및 성화를 기후 위기와 관련된 생태적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 것입니다. 하늘땅물벗 회원은 각 본당 단위 벗에서 본 안을 참고로 하여 자율적으로 변형한 사순시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를 권합니다. 오프로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기간이 하느님 모든 창조물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인간의 활동에 관한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는 온 몸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21			2/28			
- 아침 선택하기: 밝은 햇빛과 나무 및 허석이 있는 곳을 찾아 걸으며 하느님 창조의 은총을 묵상. - 무상으로 주어지는 태양광을 가정이나 성당에서 대체 에너지로 사용할 방법을 생각해 봄.			- 하느님의 창조물을 기억하는 단식: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			
2/28						
- 평화로운 음악 듣기: 음악을 듣고 자연을 떠올리며 그 아름다운 음악을 묵상한다.			- 실내 온도 조절 낮추기: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과 폐지를 개발하는 인간활동에 의해 축적된다. - 적정실내 온도: 난방 20°C 이하, 냉방 26°C 이상. (에너지 이)			

2020 창조 시기 9월 1일 - 10월 4일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하나이면서 관리자인 인간은 그 종음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창세 2,15; 예레 29,5-7 참조). 생명을 보호하고 기르기 위한 우리의 소명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연관됩니다. 지구와 모든 피조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측면들 사이에 알맞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료는 seasonofcreation.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 비대면 활동

랜선 기도모임

- 월1회 비대면 줌미팅: 1차 (2020.12월- 2021년 3월)
- 지구와 창조물 안에 살아 계신 하느님을 관상하고 찬미하는 시간
- 예수 수도회와 교구벗 연구팀 주관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 유튜브 미사: 매월 셋째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백종연 신부님 주례

창조시기 캠페인

-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프로그램 동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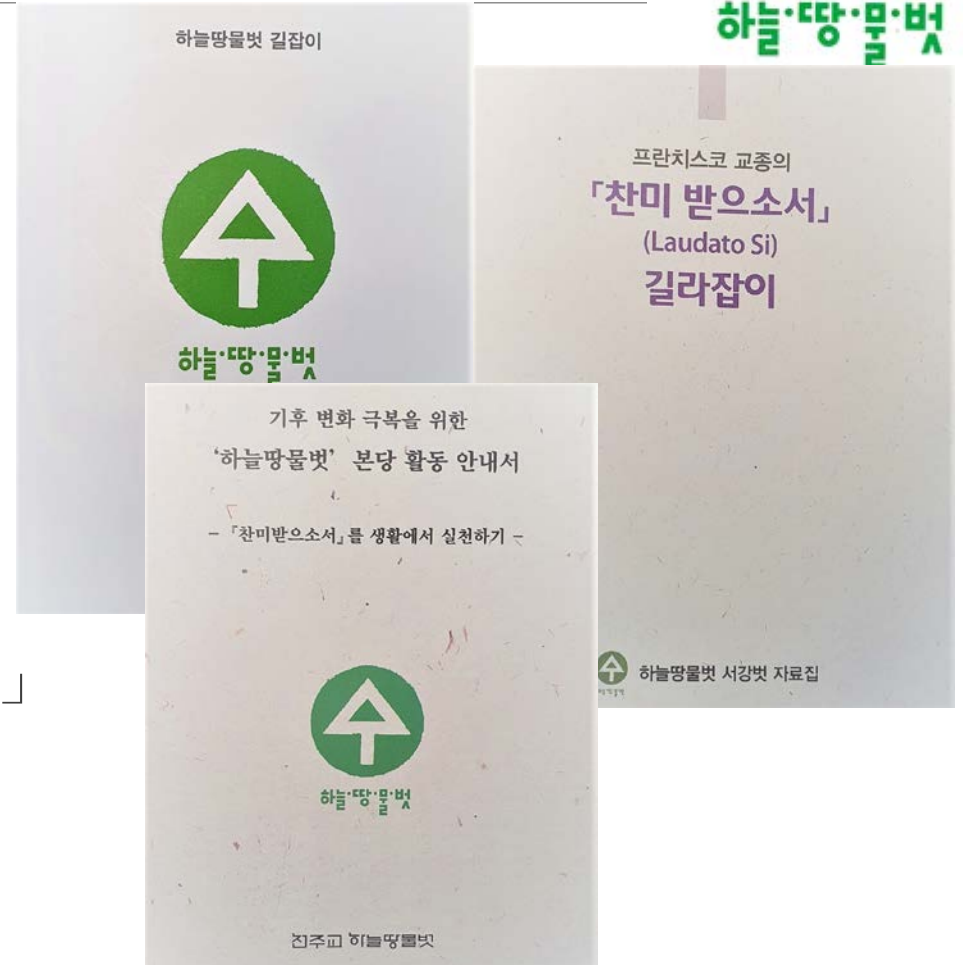




하늘·땅·물·벗

연구 활동 및 자료 발간

- 「하늘땅물벗 길잡이」
→ 교구벗 발행, 하늘땅물벗 활동 안내서
- 「찬미받으소서 길라잡이」 (서강벗)
→ 서강벗 발행, 『찬미받으소서』 학습 안내서
- 「초록회개를 위한 십자가의 길」
→ 환경사목위원회 발행
생태적 회개 영성에 따른 십자가의 길
-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한 본당 활동 안내서」
→ 교구벗 발행, 본당에서의 생태사도직 활동



교육 활동

- 교육 프로그램
- 생태영성학교:
 - 3월, 9월 연간 2회.
 - 화요일 오후 7시. 8주간
- 생태 피정 혹은 생태 탐방: 11월
- 『찬미받으소서』 공부 모임:
 - 대상: 제한없음, 비대면 학습

제38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일시: 2021년 3월 16일~5월 11일, 19:30~21:00 (매주 화요일, 총 9회)
 대상: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공부하고 활동할 신자, 수도자, 성직자
 방법: 온라인(Zoom으로 진행), 강의, 나눔, 과제(녹화영상 100분 강의 시청 등)
 신청방법(택일) 1) 링크 주소 이용 <https://forms.gle/YFQTVfR2aCzdzzzL6>
 2) 웹사이트(www.ecocatholic.org) 내 생태영성학교 교육 신청
 3) 이메일 ecocatholic@hanmail.net / 팩스 02-727-2271
 (신청 시 입학원서 제출 필수)
 접수마감: 3월 9일(화)까지 선착순 80명
 교육비: 1인당 5만원 *입금처: 우리1005-402-907778,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입금 후 꼭 확인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02-727-2283, 2272

일정	주제	실시간 · 녹화영상 강의 강사진
3/16	오리엔테이션 회칙 「찬미받으소서」(LS) 서문	백종연 신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3/23	LS 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태 위기에 관한 과학적 근거 및 전망)	조천호 박사(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백종연 신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3/30	LS 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 (창조질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백종연 신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4/6	LS 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 LS 4장 통합 생태론(사회정의와 생태정의)	조현철 신부(예수회,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 박동호 신부(이문동성당 주임,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4/13	LS 5장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접근법과 행동 방식(대화의 길)	황인철 팀장(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4/20	LS 6장 가톨릭 생태 교육과 생태 영성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	문정숙 수녀(노들담수녀회,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백종연 신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4/27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본당 활동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와 재생에너지 사용)	김연지 박사(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 평신도사도직단체 하늘땅물벗 임원진
5/4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이재돈 신부(대치2동성당 주임, 가톨릭대 겸임교수)
5/11	총정리, 나눔 및 수료미사 (수료식 포함)	제38기 교육생과 사제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늘·땅·물·벗



홍보 활동

- 홈페이지 : <http://fhew.org>
- 소식지 뉴스레터 :
격월간. 총13호 발행
- SNS : 카카오톡, 채널
- 생태 영성과 실천 지침 홍보
- SNS : 페이스북



발행처 서울대학교 하늘땅물벗
발행인 홍태희
편집 김진배

발행일 2020년 10월 6일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611호
웹주소 www.fhew.org 이메일 info@fhew.org

이달의 말씀

글_백종연 바오로 신부(하늘땅물벗 영적 동반 신부)

9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으로 만들겠다고 명시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보다 늦기는 했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봅니다. 이제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자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일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정의롭고 배려 깊은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장만을 외치며 살아온 이 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바람일까요? 너무 큰 희망일까요? 하지만, 저는 꿈꾸고 싶습니다. 희망하고 싶습니다. 꿈꾸고 희망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인간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여전히 성장 위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저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것, 누구든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설 기회가 마련되는 것,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온전한 인간 발전을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하고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온전한 인간 발전이라는 꿈을 꾸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공유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

© 김진배

환경 퀴즈 (정답 > 4면예)

- 「찬미받으소서」 1항에 나오는 "공동의 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 ① 가톨릭 신앙 공동체
 - ② 프란치스코 성인이 세운 수도회
 - ③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
 - ④ 선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하늘·땅·물·벗

연대 활동

• 평신도단체협의회

가정생명환경위원회 참여

• 가톨릭기후행동 동반

- 금요집회
- 연대활동

• 산림청 나무심기

• 생명 평화 미사 동반

• 탈핵 순례 동반

"핵 없는 세상이 참된 우리의 평화"

종교인 탈핵 순례길

10월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17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_ 명동성당

문의_031)246-9247
010-9238-3639 (전주교청조보전면대)

종교환경회의
민불교한영면대 천도교한울면대 천주교창조보전면대

가톨릭기후행동
GCCMKOREA

참가신청_ 010-5215-2274(문자)
내 용_ 1인 시위(기후위기 피케팅)
장 소_ 광화문 세월호 광장 건물목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미사

"환경 훼손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떠넘긴 채로
개인적 이익만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심각한 불의 앞에
침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 천미밖오소서 36장)

임시: 2019년 10월 24일(목) 저녁 7시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 농성장
주최: 허친한 신부(제주교구)
문의: 010-5215-2274

평가와 문제

-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에 대한 신자의 반응
 - 관심은 많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우리 본당에 ‘하늘땅물벗’이 없어요.
 - 신부님이 지금 바쁜 거 지나면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세요.
 - 본당에 환경분과가 있는데 ‘하늘땅물벗’이 필요한가요?
 - 신부님이 ‘우리농 매장’이 ‘하늘땅물벗’이라고 거기에서 일하라고 하세요.
 -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 환경단체에서 활동에 참여하는데 ‘하늘땅물벗’이 필요할까요?
- 생태사도직에 대한 본당 사목자의 인식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
- 신자들의 높은 생태적 관심을 신앙 차원에서 받아 줄 체계가 필요
- 본당 뿐 아니라 교회 관련 학교, 병원, 사회복지기관 등의 단체로 확대 필요
- 21세기의 선교로서 생태 사도직을 인식할 필요

하늘땅물벗 녹색 본당 만들기 7년 여정

누가 처음 시작할 것인가

- 본당 사목 방침에 녹색 본당 만들기 목표를 명기
 - 생태 사목 목표: 본당 내, 지역 사회, 개인별 활동.
 - 본당 활동에 '생태적 가치' 평가를 필수 요소로 함
- 본당 사목회 생태환경 분과를 둬
-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 구성
- 녹색 본당 활동 일정 계획 세우기
- 녹색본당 만들기 참여 본당의 단계별 확대
 - 1차 시범 본당:
 - 2차: 하늘땅물벗 있는 모든 본당
 - 3차: 환경분과 있는 본당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것인가

- 하늘땅물벗 교구벗
 - '하늘땅물벗 길잡이'
 - '찬미받으소서 길라잡이'
 - '본당활동 길잡이'
 - 생태 영성을 위한 기도모임
 - 못자리벗



하늘·땅·물·버섯

탄소(중립), 저탄소 본당 만들기

본당 온실가스 배출량 환산 프로그램 개발

-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본당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에너지 사용

- 본당 건물 전력 사용

- 성당

- 사제관

- 교육관

- 본당 차량 연료 사용

- 본당 부속 건물 전력 사용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 재생 에너지 전환: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

- 에너지 절약 기술 투자: 회수 기간 평가

- 조명기구: 절전형 설비 교체

- 절전 기능 있는 멀티탭으로 교체

- 건물 단열 투자: 벽, 천장, 보일러, 온수 파이프

- 공조 및 열관리 시스템: 보일러, 냉방, 환기 효율적 활용

- 본당 차량 구입시 친환경 차량을 최우선으로 고려

- 물 사용 절감

탄소 흡수 활동

- 나무 심기

신자 활동 및 교육

녹색 구매

- 친환경 상품

리필 매장 운영

무료 나눔

- SNS 활용

재활용 센터

생태영성 학교 참가

창조 보전에 관한 영성 교육

기후 친화적 생활 양식에 관한 교육

지지와 연대

세계 기후 정책 지지: COP21~

가톨릭 기후 행동 캠페인

기후 난민 지원

탈핵 연대

하늘땅물벗 녹색 본당 만들기

생태사도직단체 하늘땅물빛의 조직과 확산

정성일 신부(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하늘·땅·물·버섯

인천교구 현황



하늘·땅·물·사람



천주교인천교구
DIOCESE OF INCHEON

1. 도입 과정
2. 현황
3. 환경사목부 역할
4. 제언
5. 활동 사례



1. 도입 과정

2018.11. 9 교구장 면담- 하늘땅물벗 단체 설립 건의(환경사목부)

2018.12.21 교구벗 구성(교구환경사목위원 중심)

2018.12.22 계산동 성당 반딧불이 벗 설립

2018.12.27 고촌성당 상록수벗 설립

2019. 1.10 교구 연합 청년팀 캥거루벗 설립

2019. 1.11 교구 연합 성인팀 푸른솔 벗 설립

2018.12.31 단체승인신청서 제출

2019. 2. 1 정신철 교구장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 인준

(* 서울교구 인준 2017.2.1)

2019. 7.27 간석4동 돌틈벗 설립

2019. 9.23 가정3동 나비의 벗 설립

2019.11.21 장기동 벌새벗 설립

2020. 1.11 해안성당 갯바위벗 설립



하늘·땅·물·벗



천주교인천교구
DIOCESE OF INCHEON

1. 도입 과정

2021년 교구장 사목교서- 녹색순교 : 하늘땅물벗 확산 강조

2021. 4.22 사우2동 성당 사2벗 설립

2021. 5. 21 답동성당 벗 설립

5. 신학교 벗 설립

2021. 6월 원당동, 서운동, 산곡동, 김포 성당에 벗 설립 예정

2021년 교구장 사목서한(분기별)

2월: 환경분과 및 하늘땅물벗 조직 강조

6월: 환경분과 및 하늘땅물벗 조직 강조

+ 3無 실천(1회용, 자원낭비, 음식쓰레기 없는 성당- 인천시 협약사항)

신임환경분과장 교육 및 하늘땅물벗 신규팀 안내교육 요청 증가 중



하늘·땅·물·벗



천주교인천교구
DIOCESE OF INCHEON

2. 현 황

번호	소속	벗명	인원	상황
1	계산성당	반딧불이	6	평균 60-70대(활동 저조: 환경강론 무, 반석벗 이동 등)
2	환경사목위원	돌봄벗	4	평균 50대, 활발
3	고촌 성당	상록수	4	50-60대, 환경강론 후 설립, 활발했으나 인원 감소
4	교구 청년	캥거루벗	6	30-40대, 여러본당에서 모인팀, 활발, 환경도서공부 포함
5	교구 성인	푸른솔벗	7	여러본당에서 모인 팀, 활발, 못자리 역할- 각본당에 설립되면 본당에서 활동하기 위한 전단계
6	간석4동 성당	돌틈벗	9	평균40-50대, 환경강론 후 설립, 매우 활발
7	가정3동 성당	나비의 벗	7	30-50대, 환경강론 후 설립, 매우 활발
8	장기동 성당	별새벗	10	평균 50-70대(저조- 환경강론 무...)
9	해안 성당	갯바위벗	14	50-60대 환경강론 후 설립, 매우 활발
10	사우2동 성당	사2벗	6	50-60대, 활발,
11	답동 성당		6	40-50대
12	신학교		6	20대, 자발적 희망
	계		77	6-7월경 원당, 서운, 산곡, 김포 등에서도 설립 예정

3. 환경사목부의 역할

- 1) 본당에 하늘땅물벗 알림- 공문/ 책자 발송(사제, 수녀원)
(코로나 19로 대면 홍보 기회 적음)
- 2) 정기강좌 환경교리학교 수강생들에게 홍보- 가장 효과적
대부분의 기존 벗들이 환경교리학교 수료 후 가입함(미교육시 - 활동 저조)
- 3) 벗 설립시 사전 교육 - 본당 방문 교육 실시
- 4) 초기 1-2년은 지속적인 관심 (도움이 필요한 벗마다 단톡방 연결 등)
비대면시- 줌 회합으로 동반,



3. 환경사목부의 역할

- 5) 반석벗 단톡방 운영- 공동 소식 및 공동활동 거리 알림
예) 다양한 자원순환활동- 플라스틱 이삭줍기(병뚜껑만 모음) ,
폐폰, 폐건전지, 종이 우유곽 모으기 등
- 6) 하늘땅물벗 활동 체험 기록 독려 – 주보에 게재
- 7) 재교육 기회 제공- 정기강좌 하늘땅물벗 교육 참가비 50% 할인 혜택





하늘·땅·물·벗



천주교인천교구
DIOCESE OF INCHEON

4. 제언

1) 하늘땅물벗 담당자들의 전국 모임 필요

2) 조직 운영에 관련된 통일성 모색

(서식- 회의록, 출석부, 인준서, 길잡이 보급 방법, 의연금 등)

3) 하늘땅물벗이 확산될 경우 업무 조건 보강(인력, 사무실 등)



가정 3동 하늘땅물벗

나비의 벗 활동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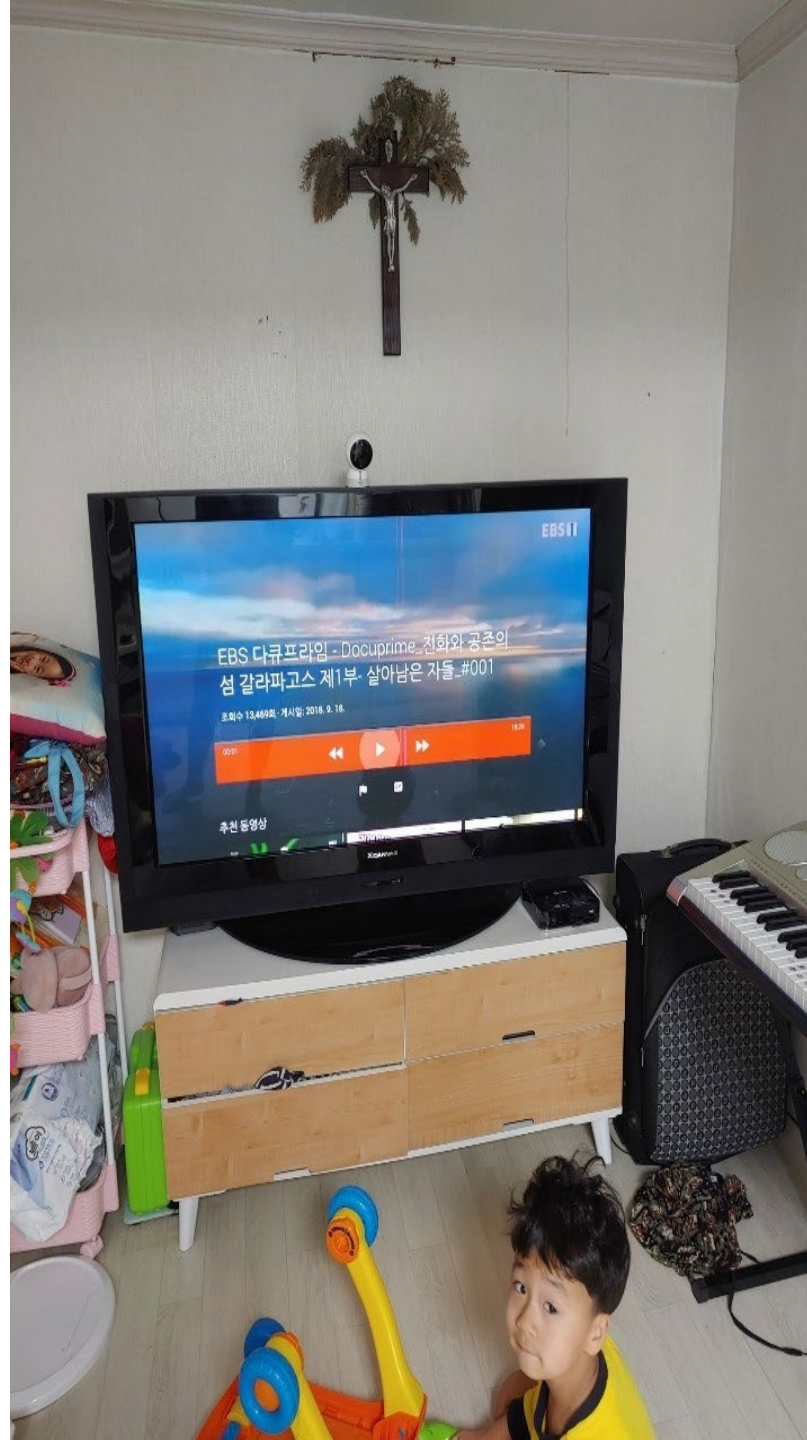
2021년 4월 8일
지구를 위한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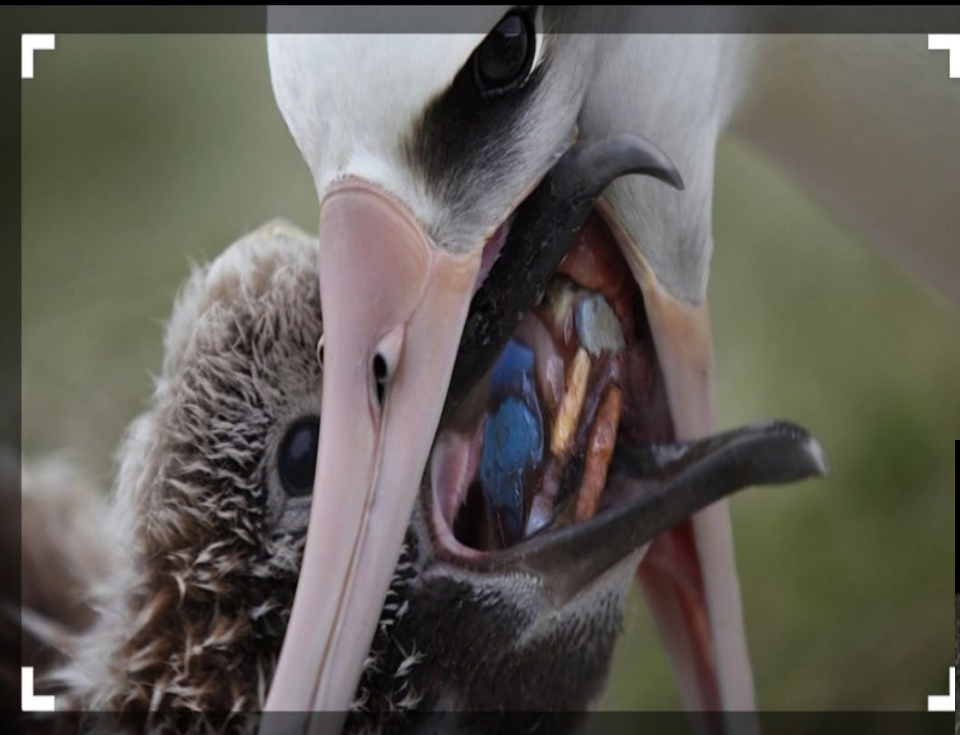
+부활 축하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2021. 부활절에

환경관련 영상 공부하기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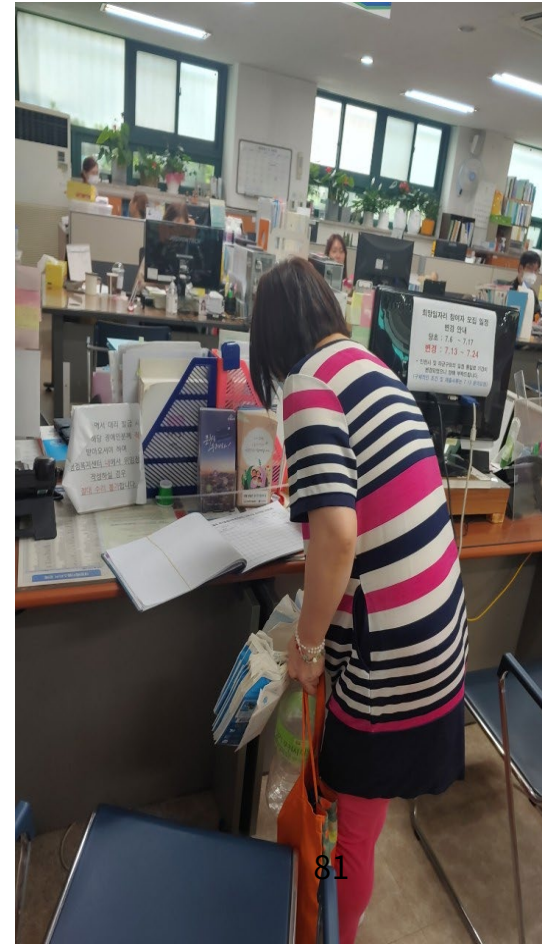




플라스틱용기로 장난감
만들기 교환

우유곽 모아 자원순환하기

-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비닐로 교환



성가책 소독작업

2020년 2월 코로나 19
시작 무렵







냉장고 정리하기 (정리후 인증샷 단톡방에)





현수막 재활용하 기

- 재봉틀 구입- 재봉 수업후 만들기
- 시장 주머니, 앞치마 만들기







현수막 재활용 전시

사회사목센터

2021/.2월 지구를 위한 미사



냉동팩 재사용캠페인



애물단지 '냉동팩' 재사용에 동참하세요

미세플라스틱 일종 자연분해 수백 년 걸려... 수거 후 소상공인 등 필요한 곳에 전달

인천 가정3동 '나비의 빗'
성당 사무실 수거함 설치
본당 신자들 참여 이끌어

환경 파괴로 인해 생긴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는 다시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
워지면서 배달 및 택배 주문이
폭주해 쓰레기 배출이 대폭 늘
었기 때문이다. 택배 쓰레기 가
운데에서도 냉동팩(아이스팩)은
대표적인 애물단지로 손꼽힌다.

냉동이나 냉장식품 택배상자
에 함께 들어있는 냉동팩은 크
게 세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흡수
성 폴리머(Super absorbent
polymers, SAP) 팩과 종이
팩을 넣은 팩, 그리고 얼린 생
수 팩트병을 활용하는 것이다.

고흡수성 폴리머는 물과 만
나 젤 형태로 변하면서 수십 배
이상의 수분을 머금는다. 이 때
문에 보온과 보냉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성분은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고흡수성 폴리머는 열에도 타
지 않아 소각이 불가능하고 자
연분해도 수백 년 이상 걸린다.
또한 내용물을 하수구에 버릴



인천 가정3동본당 '나비의 빗' 회원들이 본당 사무실 내에 설치한 냉동팩 수거
함을 들어보이고 있다. 우수진씨 제공

경우 환경오염은 차치하고라도
내용물이 팽창해 하수관을 틀
어막을 수 있기 때문에 팩 표면
에 절대 내용물을 하수구에 버
리지 말고 쓰레기봉투에 버리
라는 설명이 쓰여 있다.

친환경을 표방해 최근 들어
사용이 늘어난 종이 냉동팩도
친환경적이지 않다. 겉면은 종
이이지만 물을 넣었을 때 종이
가 녹아 흐물거리는 것을 방지
하고자 내부에는 폴리에틸렌
성분으로 코팅을 한다. 겉면
은 '종이'라고 쓰여 있어 분리수
거가 가능하다고 표기했지만
사실상 재활용은 불가능하다.

얼린 생수병을 냉동팩 대신
사용하는 업주들은 나름대로

환경의식을 가지고 냉동팩 사
용을 줄이고자 비용 부담을 감
수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궁극
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늘
리는 결과를 낳는다.

냉동팩을 냉동 용도 외에 사
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
적이다.

내용물을 가지고 방향제를
만든다든지 찜질팩으로 사용한
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만 급
속히 썩어가는 냉동팩을 모두
소진하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냉동팩 사용을 최소화하고 냉
동팩을 재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냉동팩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들과

대형마트, 생활협동조합 등에
서는 자체적으로 냉동팩 수거
를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
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가톨릭환경연대(신임대표 최
진형)는 지난해 9-10월 '아이스
팩 수거 운동'을 펼쳐 수거한 냉
동팩을 자비로 냉동팩을 구입
해 써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전달했다.

냉동팩 수거 활동을 시작한
본당도 있다. 인천 가정3동본당
(주임 박병석 신부)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광물빛 '나비의 빗'은
최근 성당 사무실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본당 신자들이 갖고
오는 냉동팩을 수거해 지역 정
육점에 전달하고 있다.

'나비의 빗' 반석(회장) 우
수진(아가타)씨는 "주임신부님
께서 주보에 냉동팩 수거에 대
해 지속적으로 게재해주신 덕
분에 미사 참여가 어려운 가운
데서도 한번에 5-6개씩 가져다
주는 분들도 계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양이 수거되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와서 가져가는 형
태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으며, '나비의 빗'이라는 이름
처럼 나비효과를 일으켜 지역
사회와 같이 활동하는 것이 목
표"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soophia@catimes.kr

플라스틱 이삭줍기 운동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플라스틱 이삭줍기-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운동

1. 목적: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선별 작업 때 병뚜껑은 손에 잡히지 않아 소각처리되므로 자원과 에너지 낭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쓰레기 출발점인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잘 분리하면 자원순환에 보탬이 되도록 이 운동을 진행합니다.

2. 기간:

플라스틱 병과 뚜껑이 단일재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화될 때까지 당분간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모으는 방법

각 분당 환경분과(혹은 하늘땅물벗)는 수거 박스를 마련하고 안내문을 부착하여 성당 입구에 비치합니다. 신자들은 미사를 참례할 때 가정에서 모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수거박스에 담습니다. 비신자 이웃도 동참하도록 권유합니다. 일정량이 되면 아래 선별업체로 직접 발송하면 됩니다.

대성환경 : 인천시 서구 도담 4로 10번지 (032-564-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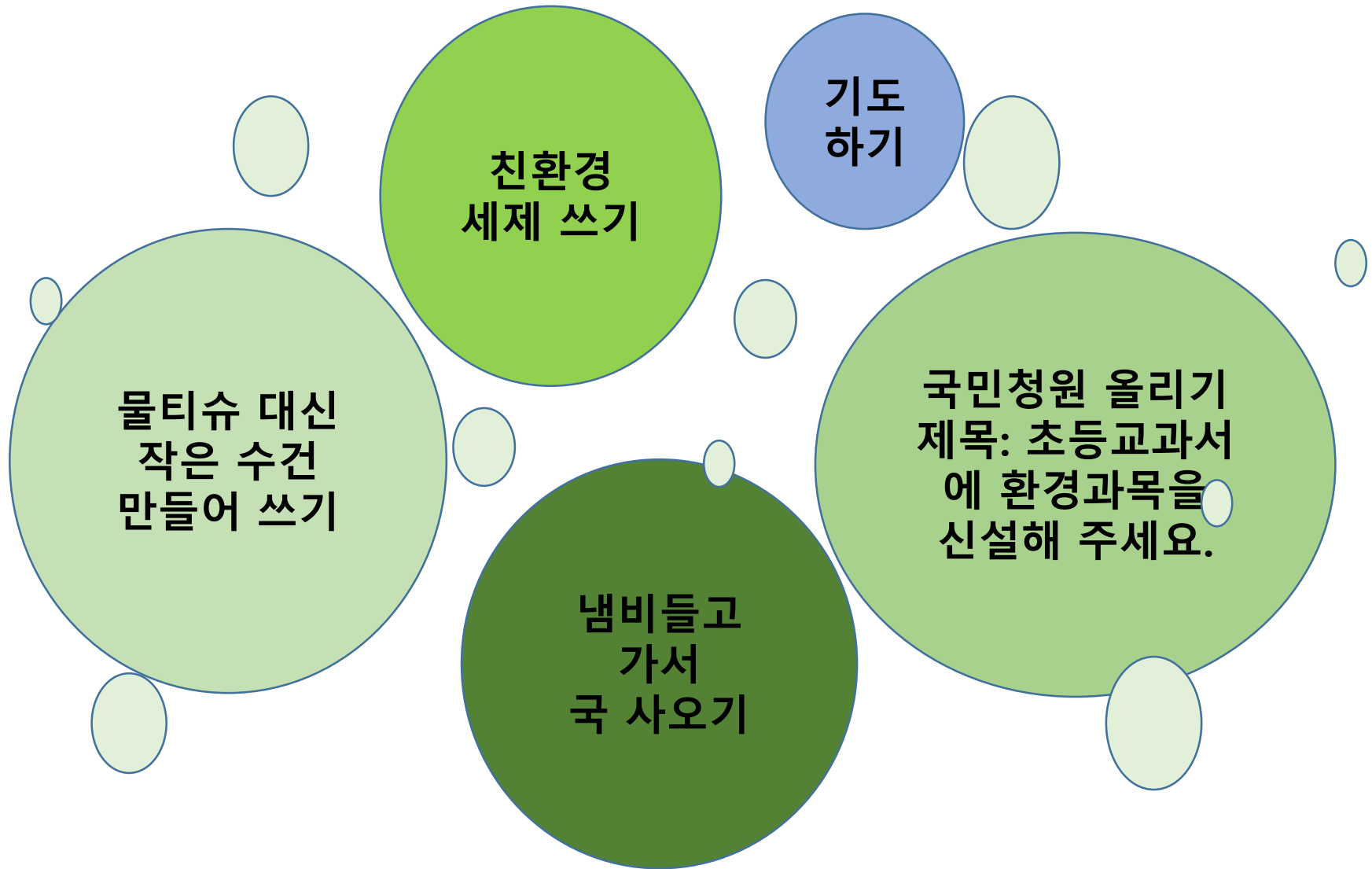
4. 수거대상 병뚜껑(PP, HDPE 재질)

- 음료병 뚜껑, 병목고리를 모아주세요. 음료병 뚜껑의 경우 대부분 PP, HDPE 재질임
- 실리콘, 고무, 비닐 등 다른 재질이 부착되어있는 병뚜껑은 안됩니다.
- 스티커, 라벨, 음식물 등 이물질들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 손바닥만한 뚜껑이라면 PP라고 자체에 재질이 표기되어 있는 플라스틱은 가능합니다.

예) 이미지

자원순환 마크에 PP(폴리 프로필렌) 혹은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표시가 된 것은 가능함	뚜껑에 이물질이 없는것만 가능함

5. 문의: 환경사목부 032-765-7255



엄마는
그때,
지구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었어!

엄마,
엄마는 기후위기때
뭘 했어요?



[첨부]

인천교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Laudato 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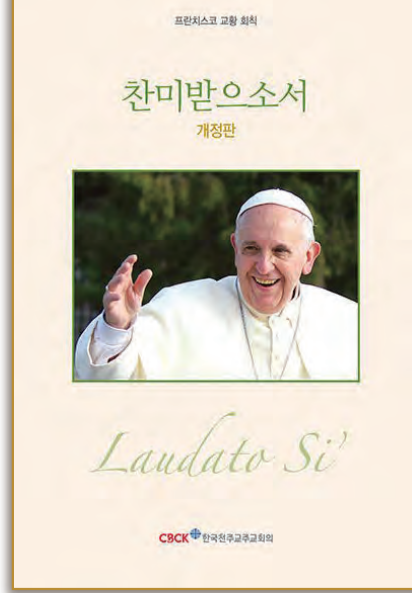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2021.5.24.~2028.5.23.)



천주교 인천교구



Laudato Si'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2021.5.24 ~ 2028.5.23)



인천교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며 -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15년 5월 24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셨습니다. 회칙을 통하여 교황님은 기후위기로 심각해지는 환경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이 필요함을 간파하시고 회칙을 통하여 통합생태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회칙은 12월에 개최된 파리기후협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듬해 2016년 8월 17일, 교황님은 ‘인간발전’이라는 교서(부록8)를 발표하시며 정의평화 창조질서와 보전 및 다양한 형태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목을 담당하는 교황청 부서로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¹⁾를 신설하였습니다. 교황님이 얼마나 우리 일그러진 인간 사회와 지구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치유하고자 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2020년 5월 24일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세계 교회가 2021년 5월 24일까지 특별 기념의 해를 지내고 이후 다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부록10) 또한 특별 기념의 해와 그 다음 칠 년이 참으로 은총의 시간, 곧 지구와 인류와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참된 때(kairós)를 경험하는 ‘희년’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가톨릭 교회는 2021년 5월 24일부터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7년은 성서적 안식년과 희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주님의 안식년이다. (레위기 25,3-4)

너희는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해야리라. 그러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마흔 아홉 해가 된다. … 너희는 이 오십 년째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레위기 25, 8-10)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지구에 진정한 희년을 선사하는 이 대열에 모든 이를 초대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2021년은 파리기후협정 내용을 실행해가는 신기후체제 시대가 시작되는 해이며, 지난 2018년 과학자들이 IPCC 1.5°C 특별보고서²⁾를 발표한 이후 지구평균 온도 상승 1.5°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7년 뿐인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1.5°C가 넘으면 지구는 복원력을 잃게 되고 인류는 심각한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의 시급성은 지역, 국가, 세계를 망라하는 모든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총체적이며 일치된 응답이 필요합니다. 특히 풀뿌리 ‘대중 운동’, 곧 선의의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정의 평화 평의회, 사회복지 평의회, 이주사목 평의회, 보건의료평의회를 통합하고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노예, 이민, 난민 등을 위한 사목과 함께 환경사목을 담당하는 교황청 부서가 되었다.

2)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과학자들이 2018.10.1-5일, 송도에서 48차 총회 실시후 발표한 특별 보고서, 지구 온도 상승 1.5°C로 억제해야 기후 위기의 재앙적 수준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하여 2020년 10월 16일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특별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부록11)를 발표하고 실천지침(부록12)도 제시하면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천주교회도 보편 교회와 한마음으로 7년간의 생태적 희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와 어머니 지구의 울부짖음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만큼 각 교구도 사목 교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태적 회개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우리 교구도 올해 사목교서에서 녹색순교(부록3)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인천교구도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자료집에는 환경사목부를 중심으로 사회사목국의 여러부서들이 마련한 7년 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고 부록의 자료들, 특별지침(부록12)을 참조하여 찬미받으소서 7년여정 실행 주체가 되는 플랫폼으로 가정, 교구와 본당, 학교, 대학교/대학, 병원/의료시설, 기업, 농업, 수도회 등에서도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매년 실행평가를 해가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활발한 실천이 이루어져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마침내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은 세상을 이뤄가는데 다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적 회개’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요청되며 피조물 안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회개가 단지 ‘환경 보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모든 사목 분야에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천주교 주교단 특별사목교서 중에서

2021. 5.24

인천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목 차

인천교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며 1

목 차 3

- I. 회칙 「찬미받으소서」 이해 4
2.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흐름 5
3.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행목표(기본) 6
4.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실행기관) 7
5.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와 실행계획 10
- 5-1. 환경사목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연도별 세부계획 12

<참고자료>

- 부록1) 환경교육 영상자료 16
- 부록2) 생태사도직 하늘땅물벗 17
- 부록3) 환경회복실천 운동표(지구를 위한 기도) 19
- 부록4) 자원정거장/ 플라스틱 이삭줍기 21
- 부록5) 금주의 녹색순교 22
- 부록6) 환경교리학교 강좌안내 23
- 부록7)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24
- 부록8)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사회사목국 목표 실행계획 25
- 경찰 교정사목부/ 생명사목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 이주해양사목부/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부
- 부록9) [자의 교서]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2016) 31
- 부록10)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2020) 32
- 「찬미받으소서」 주간 전 세계 거행 33
 -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 폐막행사 33
 - 특별 기념의 해에 출범할 특별 기획 33
 -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34
 -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통합 생태론 평가하기 「찬미받으소서」의 목표 35
 - 「찬미받으소서」상 제정과 「찬미받으소서」 시상 계획 36
- 부록11) 한국 천주교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2020.10.16) 37
- 부록12) 특별 사목교서 실천지침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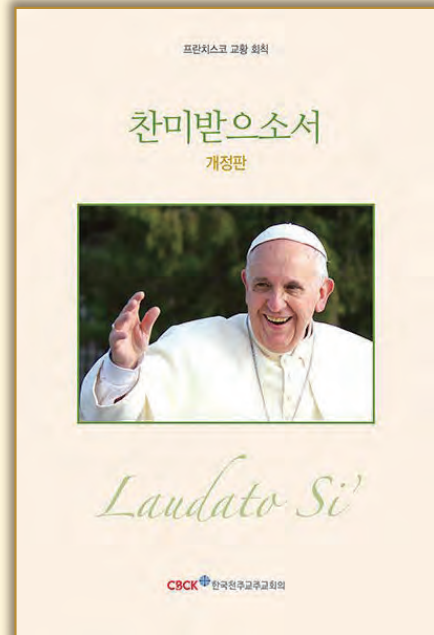
1. 회칙 「찬미받으소서」 이해

반포:

프란치스코 교황, 2015.5.24.

성격: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내용,
기후위기를 직면한 지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첫 환경회칙이면서
동시에 사회전체의 대 전환을
호소하는 사회교리회칙



주요핵심 내용

관찰

- 1. 공동의 집에 일어나는 일 파악하기(기후위기, 사회 불평등 등)
- 2. 피조물이 복음임을 인식하기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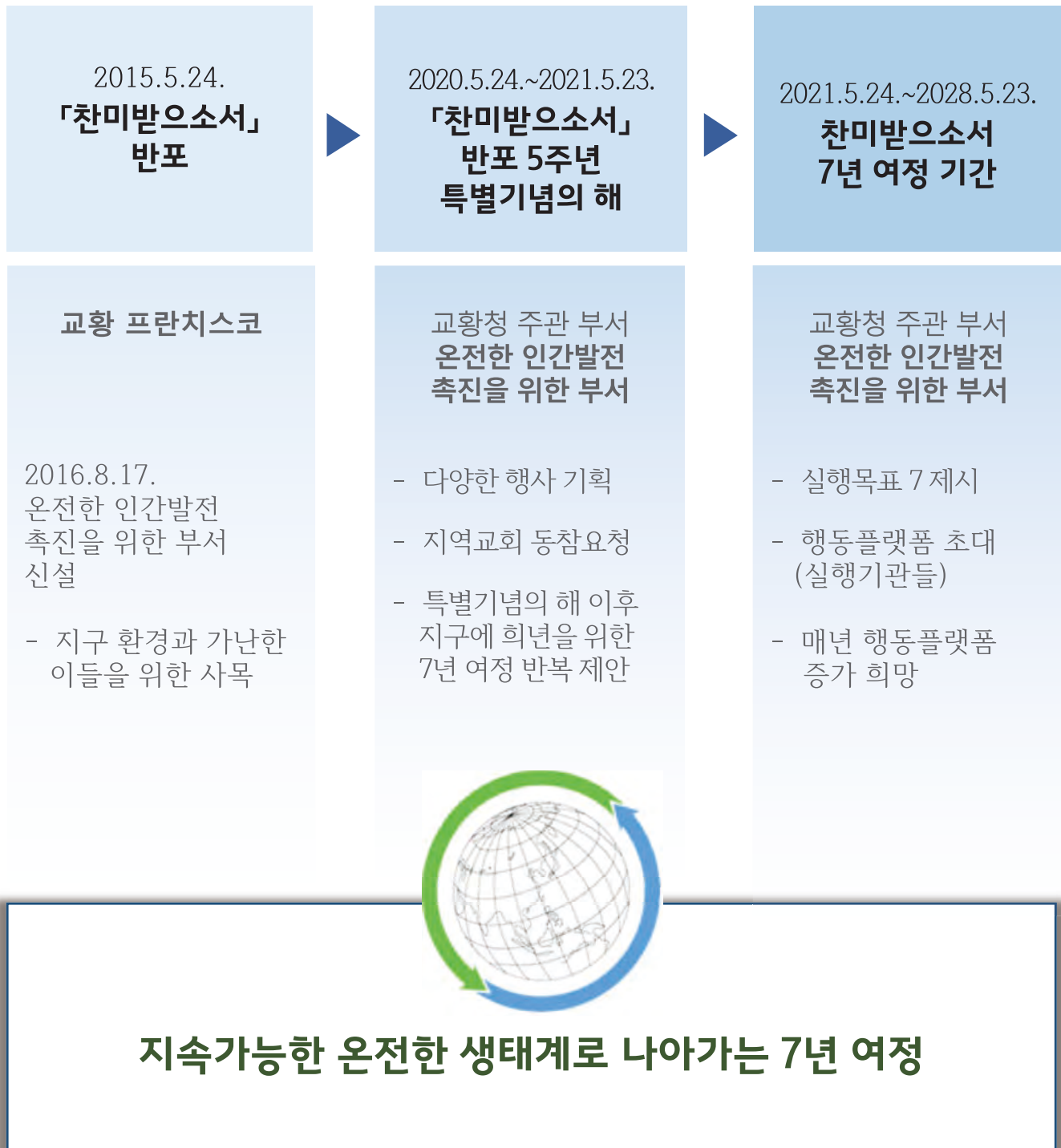
- 3. 생태위기의 근원을 성찰하기(기술 만능, 과도한 인간중심주의)
- 4. 지구를 돌보는 통합생태론 적용하기

행동

- 5. 접근법과 행동방식- 대화
- 6. 생태교육과 생태영성 파악하기



2.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흐름



3.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행목표(기본)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가 2020년 5월 제시한 실행목표이며, 이에 따라 각 실행기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매년 평가, 보완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부록 10)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화석연료를 줄이기,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기, 깨끗한 물 접근권 보장하기 등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원주민 공동체, 이민, 신종 노예의 위험에 놓여 있는 어린이 등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임신에서 죽음까지 인간 생명을 수호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기

3. 생태경제학

지속가능한 생산,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윤리적 투자, 화석연료와 지구에 해로운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 철회, 재생에너지 투자

4. 검소한 생활양식

자원과 에너지 소비 절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삼가기, 채식 늘리고 육류 소비 줄이기,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공해를 일으키는 교통수단 이용 삼가기 등

5. 생태 교육

생태적 인식을 진작하고 구체적 행동을 북돋우기, 젊은 이들과 교사들과 교육계 지도자들의 생태적 소명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통합 생태론에 비추어 교육과정을 재검토 재정립하고 교육기관을 개혁해 나가기 등

6. 생태 영성

하느님 피조물 바라보는 신앙의 눈 회복하기, 경탄과 찬미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연을 더 많이 접하도록 장려하기, 피조물에 중점을 둔 전례 거행하기, 생태교리교육, 기도, 피정, 교육 개발하기

7. 지역, 국가, 국제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대중인식 개선 캠페인 장려하기
지역과 이웃 생태계 안에 생태의식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도록 장려하기 등

실행평가

7가지 실행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매년 보완하기



4.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실행기관)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촉진 부서의 기대(부록 10)

-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은

「찬미받으소서」의 7가지 실행목표를 수행하며
생태적 회심을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행동 단위체라 할 수 있습니다.

1.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가정
2.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교구, 본당
3.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학교
4.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대학교/대학
5.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병원/의료시설
6.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기업/농업
7.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수도권/수도관구



- 이 플랫폼(실행기관)들이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에 따라 통합 생태론의 7년 여정 동안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세웁니다.

- 매년 이 플랫폼들이 두 배로 증가하길 바랍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찬미받으소서」에서 영감을 받은 관계망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망이 해마다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되고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환경사목부

5.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 실행 계획 (2021.5.24.~2028.5.23.)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1. 본당 환경분과 및 생태사도직단체 하늘땅물벗 조직 독려
(총 129개 본당 모두 조직/ 하늘땅물벗 1본당 1팀이상 구성)
2. 탄소중립을 위한 연도별 중점사항 실천:
예) 2021년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1.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 돕기
2. 가난한 나라 코로나 19 백신 나눔 운동 참여
2. 환경 난민 돕기
3. 이주민 돕기

3. 생태경제학

1. 교구청, 기관, 본당 등 은행 거래시 해당 은행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도록 독려
2. 개인도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도록 독려
3. 햇빛발전 협동조합 가능성 검토 및 추진 (본당, 기관 등)
4. 교회 건축물에 친환경적인 설비 강조

4. 검소한 생활양식

1. 환경회복 실천표/ 지구를 위한 기도 전교구민에 배부 실천요청
2. 녹색순교 실천사항 후보 게재- 2분 환경교리 자료 본당에 제공
3. 자원순환 프로그램 본당에 제공
4. 자원순환 전통시장만들기 캠페인



인천교구 환경사목부는 7년 여정 동안 교구내 본당의 환경사목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환경 관련 조직활성화 및 환경교육,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길과 자원순환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5. 생태교육

1. 사제, 본당 전교수녀, 신학생, 교구 관련 직원 환경교육 실시
2. 본당/기관 전신자 환경교육 실시 및 자료 제공
3. 지구를 위한 미사 후 미니 환경특강 실시(월 1회)
4. 주제별 환경교리학교 지속(상하반기, 각 7강좌)
5. 생태환경교사 양성 및 파견교육 활동
(성직자, 수도자, 교리교사 등 단기 집중코스- 30명 목표)

6. 생태영성

1. 지구를 위한 미사 지속 및 본당에도 확산 독려
2. 피조물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및 창조시기 기도자료 제공
3. 다양한 생태영성피정 기획 및 실행(관련 기관과 연계 가능)
- 인천의 다양한 자연 체험 피정-섬, 갯벌, 산 등
4. 감사노트 운동 확산

7.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1. 인천교구-인천시 자원순환사회 협약 실천 : 3無 성당만들기
(1회용품, 자원낭비, 음식물 쓰레기 없는): 자원정거장 운영 및 확대
2. 인천환경공단협약 실천: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3. 정치인 환경공약 모니터링 및 실천촉구 캠페인 참여
4. 가톨릭 기후행동 협력 활동

실행평가 (매년 5월말)

1. 7년 여정의 목표 실행 평가를 통하여 목표달성 및 점검
2. 교구 산하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실행기관)들의 실행평가에 따른 시상

5-1. 환경사목부 <찬미받으소서>7년 여정 연도별 세부계획

목표	1년차	2년차	3년차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1. 교구장- 7년간 사목교서와 서한으로 녹색순교 강조 2. 전본당 환경분과 조직독려 3.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 조직 독려(50/129본당) 4.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5. 자원정거장 운영 시도(2-5곳)	+	+
2.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응답	1. 가난한 나라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 기부 독려 2. 미얀마 민주화 지원금 기부독려	1. 환경난민 돕기	1. 나눔 냉장고 운영 시도(음식재료)
3. 생태 경제학	1. 교구 기관, 개인들의 거래 은행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	+
4. 검소한 생활양식	1. 환경회복 20가지 실천표 (뒷면:지구를 위한 기도) 전교구민이 활용하게 독려 2. 자원순환 프로그램 진행 (폐폰, 폐건전지, 플라스틱 이삭줍기, 등)	+	+
5. 생태교육	1. 대상별 환경교육 실시 2. 본당/기관 전신자 환경교육 3. 금주의 녹색순교 실천사항 - '2분 환경교리' 자료제공 4. 지구를 위한 미사 후 미니환경특강 5. 상하반기 환경교리학교 지속 6. 생태환경교사 양성 준비	+	+
6. 생태 영성	1. 지구를 위한 미사 지속 2. 생태영성피정 준비 - 유관 기관과 연계 구상 3. 피조물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및 창조시기 지내기	+	+
7. 지역, 국가, 국제차원 피조물 보호 공동체적 능동적 참여	1. 제주교구 협약(2018) 실천: 공동 심포지엄 개최(제주 주관) 2. 인천환경공단 협약(2020)실천: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3. 인천시와 인천교구협약(2021.4.14.) 3無 성당만들기 독려 -1회용품, 자원낭비, 음식쓰레기無 자원순환가게 프로그램 연계 4.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개막 미사 참석	+	+
실행평가	매년 5월말 실행평가 실시/ 다른 행동 기관들을 위한 시상시 실행평가 요청 가능		



● + 표는 1년차 계획들이 지속됨을 의미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 1. 하늘땅물벗 전담 인력 편성 고려 2. 환경분과장 교육 연1회 3. 자원정거장 (40곳 목표)	+ 1. 자원정거장 (50곳 목표)	+ 1. 자원정거장 (60곳 목표)	+ 1. 자원정거장 (70곳 목표) 2. 환경우수 본당 시상 3. 우수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시상
1. 해수면 상승 피해지 돕기 독려	1. 생명농업 농부들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건의	1. 환경난민 돕기 2. 이주민 돕기	1. 도농 직거래 홍보로 농민 돕기
+ 1. 햇빛발전 협동조합 본당내 확산	+ 1. 햇빛발전 협동조합 본당 확산 지속	+ 1. 친환경 일자리 사례 제공	+ 1. 친환경 일자리 사례 제공
+ 1. 아나바다 코너 운영	+ 1. 텃밭가꾸기 확대 독려	+ 1. 클린하이킹/플로깅 홍보 (등산, 조경시 거리 청소)	+ 1. 과소비 줄이기 강조
+ 1. 환경기반시설 견학 (선별장)	+ 1. 환경관련시설 견학 (재생에너지 모범 사례지)	+ 1. 환경관련시설 견학 (재생에너지 사업현장)	+ 1. 환경관련시설 견학
+ 1. 찬미받으소서 피정(섬) 2. 감사노트 운동 확산	+ 1. 찬미받으소서 피정(성사)	+ 1. 찬미받으소서 피정(숲)	+ 1. 찬미받으소서 피정 (모든 형제애)
+ 1. 탈원전 캠페인 지속	+ 1. 기후악당 기업에 반대 캠페인	+ 1. 해양정화 활동 독려	+ 1. 청소년 기후행동 협력
매년 5월말 실행평가 실시/ 다른 행동 기관들을 위한 시상시 실행평가 요청 가능			

*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대한 부연 설명(12쪽 참조)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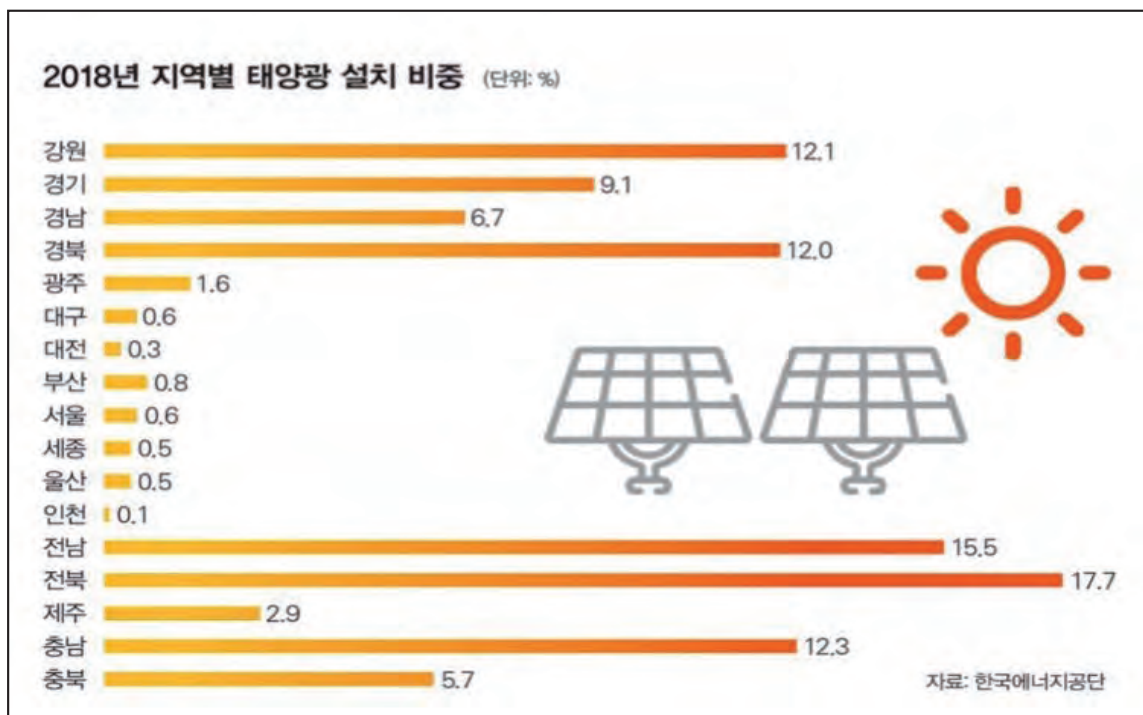
- 1)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필요(에너지분야 - 온실가스 배출 70% 이상 차지)
 절전소 운영 시급(전기 절약 실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급
- 2) 세계적 흐름: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운동
 수출 기반 한국 기업에 거래 압박(재생에너지로 생산촉구)
 석탄발전이나 핵발전에 의한 에너지는 RE100에서 제외됨
 탄소국경세 부과(2023년): 유럽연합(EU), 미국 등

판단:

- 1)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에 의존,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율 최저
- 2) 인천: 탈석탄 동맹 가입(2020.11.26)- 향후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예상

행동:

- 1) 성당 건물은 지붕이나 주차장 등의 유휴 공간을 제공- 태양광 설치(자연 훼손 방지)
- 2) 방법: 협동조합 형태로 신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출자하여 비용 부담 및 운영
 전기 생산에 따른 수익은 조합원들이 분할, 성당엔 소정의 기부
- 3) 성공사례: 최초의 선례- 대전교구 갈마동 성당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불휘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운영 (2019년 설립, E-mail: bulhuisun@hanmail.net)
 에너지 자립 마을 공동체 확산 중



참고 자료

- * 부록 1-7는 환경사목부에서 실행하는 몇가지 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 * 부록 8은 사회사목국 소속 여러 부서가 준비한 7년 여정 계획안입니다.
- * 부록 9-12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하게 되는 배경과 관련된 교황청 문헌과 한국주교단에서 발표한 문헌의 전문을 수록한 것입니다. 각 단위체에서 7년 여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문헌들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록1) 환경교육영상자료

환경교육에 대해 몇가지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외에 환경 관련도서, 미디어 자료는 의정부 교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자료집 ‘행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후 위 기	기후변화 이대로면 10년 뒤 해운대, 인천공항 잠긴다(4분)  https://youtube/s4OEN5lsCgg	기후위기 과장 아닌가요? (4분35초)  https://youtu.be/4n3mifBycuE	과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현실 부 정하는 10년 후 팩트(8분 45초)  https://www.youtube.com/watch?v=cMBNmmsPSIQ
육 식	인간의 육식과 지구 환경 (4분 5초)  https://www.youtube.com/watch?v=Ax7bnasBdSI	채식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조길에 박사 (39분 25초)  https://www.youtube.com/watch?v=RvbPAEsV89E	기후변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QnA)(10분 22초)  https://www.youtube.com/watch?v=Rwkz1A0LaVY
에 너 지 전 환	파리협정_정의로운 전환_ ETUC(6분30초)  https://youtu.be/jmCUH0-dEjE	기후위기 그만! “석탄발전 대탈출”해요!(4분30초)  https://youtu.be/Re_zRpEmryI	기후위기 때문에 삼척으로 갑니다.(3분40초)  https://youtube/KiaR/huWAR4
플 라 스 틱 / 생 물 다 양 성	쓰레기 대란 시대 꿀팁, 분리배출 완전 정복(12분23초)  https://www.youtube.com/watch?v=jnpBtp442V0	홍수열 소장, 코카콜라가 썩지 않는 플라스 틱 거부한 이유(8분4초)  https://www.youtube.com/watch?v=vXYuQagq48o	기후위기와 점박이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10분10초)  https://youtu.be/7RGJ6tBgEE



부록2) 생태사도직 단체 - 하늘땅물벗



창립: 2016.10.4 주보: 성 프란치스코 인준: 2017.2.1 서울대교구 정식 인준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에 영향을 받고 한국에서 창립됨)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은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인간을 살리는 벗들의 모임이다.
우리 인간과 하늘 땅, 물은 벗이 되어 서로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는 관계임을 깨닫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적인 책임을 실천하는 생태사도직 단체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본당에서 환경사목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만큼 환경회복을 위해 누룩처럼 봉사하는 단체가 필요한데 하늘땅물벗은 그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 단체가 전 교구에 확산된다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큰 결실이 될 것이다.

인천교구에서 활동하는 하늘땅물벗

2019. 2.1 인천교구 하늘땅물벗 정식 인준, 본당 환경분과 산하 생태사도직 단체로 활동 시작

설립과정: 인원모집- 환경사목부에서 하늘땅물벗 안내교육 제공- 벗 운영(승인절차 포함),
하늘땅물벗 길잡이에 따라 회합, 기도, 활동 나눔, 환경가르침에 대한 공부

2021년 사순절 담화문을 통해 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하늘땅물벗 단체가 확산되기를 강조하였다.
현재 본당과 기관에서 10여개 팀이 활동 중이며 찬미받으소서 7년여정을 계기로 129개 본당에 1팀이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활동 중인 하늘땅물벗 팀은 본당 내 환경사목에 활기를 주고 있다.

(중략) 그러기에 이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다음의 세 가지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1. 녹색 순교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몇몇 본당에서 시작하고 펼쳐지고 있는 생태 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을 모든 본당에 조직하여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패트병을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끓여 먹는 가장 쉬운 노력부터 시작합니다.
3.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기를 권유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을 전년 대비 5%이상 줄이며 혜택을 받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입니다. 각 본당 사무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가입하여 혜택도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
2021 사순절 담화문에서

인천교구 가정3동 하늘땅물벗- 나비의 벗 활동사례



쌀뜨물 발효작업을 함께하며 세제로 사용하고 수질 정화에 일조 하였다.



종이 우유팩을 모아 행정복지센터에서 휴지나 종량제 비닐 봉투로 교환 자원 순환에 협력하였다.



냉장과 정리를 정기적으로 하여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동료들과 공유하였다.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장가방을 만들기 위해 재봉틀을 구입하고 직접 제작하여 신자들에게 배부하였다.



냉동팩을 모아 인근 시장 가게에 전달하였다. 이 소식을 가톨릭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다.





부록3) 환경회복 실천운동

환경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도록 A4 크기로 양면 인쇄하여 전 교구민에 배부한 표

쓰레기	1.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용기 사용 절제하기 2. 개인 물병 휴대하기 3. 생수 구매 자제하기(플라스틱 분해, 500년) 4. 물건 구매시 비닐봉지 거절하고 장바구니, 비닐대용 주머니, 필요한 그릇 휴대하기 5. 일회용품 사용 멈추기(물티슈, 빨대, 비닐장갑, 랩 등) 6. 쓰레기 분리배출 바르게 실천하기 (내용 비우기-헹구기- 상표 분리- 재질별 분리배출) 7. 택배 자제하고 과대포장 개선 요청하기
육식	8. 육류와 유제품 섭취 줄이기 9. 채식 늘리기(축산업이 온실가스 절반 배출)
음식쓰레기	10. 제철 음식, 우리 농산물 구매하기 11. 배달음식 절제하기(음식, 일회용품 쓰레기 줄임) 12. 음식 남기지 않기 13. 필요한 양만큼 요리하기 14. 냉장고 정기적으로 정리 하기
물	15. 샤워시 물 아끼기(샤워시간 단축, 양동이 사용 등) 16. 설거지, 양치질, 세수시 물 받아서 하기
에너지	17.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기(성당 포함) 18. 대중교통 이용하기(자전거 이용하기 포함) 19. 에너지 절약하기(전등, 냉난방기, 승강기 등) 20. 사용 후 전기 플러그 뽑아 두기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환경회복실천운동표 뒷면)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부록4) 자원 정거장/ 플라스틱 이삭줍기



자원정거장

자원낭비를 막는 지름길은 쓰레기 분리 배출을 올바르게 하는데 있다 쓰레기나, 자원이냐는 분리배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천교구청 환경사무부에서는 자원정거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자원이 될 수 있는 몇가지 (투명페트, 일반 플라스틱류, 비닐류, 병류, 캔류, 알루미늄, 종이, 스티로폼등)를 올바르게 모아서 기관의 일정한 수거 장소(자원정거장)에 보관한다. 일정량이 되면 쓰레기장에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내 고물상이나 시청의 자원순환가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배출함으로써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은 증가시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2021년 4월 14일 인천교구는 인천시와 환경 협약을 맺고 3無성당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3무:1회용품, 자원낭비, 음식물쓰레기 없는)

자원정거장은 이 협약을 실천하는 일환이기도 하며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동안 이 시스템을 교구청부터 시작하여 각 본당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이삭줍기

자원정거장 일환으로 '플라스틱 이삭줍기'(병뚜껑만 모음)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쓰레기 처리과정중 선별장에서 병뚜껑은 몸체와 재질이 달라 분리 선별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쓰레기 중에 작은 병뚜껑을 따로 골라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자원임에도 대부분 소각처리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려고 가정에서부터 따로 병뚜껑만(PP재질만) 이삭줍기 하듯이 골라 선정한 선별업체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자원회수에 일조하려는 것이다.

각 본당에 공문을 보내어 플라스틱 이삭줍기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고, 환경분과나 하늘땅물벗 단체가 봉사 주체가 되어 각 본당에서 수집한 병뚜껑은 직접 지정 선별업체로 우송하고 있다. 작은 일이지만 본당신자들이 다함께 쉬운방법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하기 좋은 캠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록5) 금주의 녹색순교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2021년 사목교서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로 녹색순교를 제안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20년 대림시기부터 주보 1면을 이용하여 ‘금주의 녹색순교’라는 고정란에 매주 한가지씩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탄소중립의 방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제2668호
2021년 5월 2일 |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eon.or.kr



우리 본당 보물 찾기 <심봉 성당>

배성호, 출판, <깨어 기도하라>, 1993년, 4.6x31cm

입당송 | 시편 98(97), 1-2 참조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9, 26-31

화답송 | 시편 22(21), 26L-27, 28과 30ㄱL, 30C-32(㉔ 26ㄱ 참조)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자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을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를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로다. ◎

제2독서 | 1요한 3, 18-24

복음 환호송 | 요한 15, 4, 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 요한 15, 1-8

영성제송 | 요한 15, 1, 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금주의
**녹색
순교**

전기절약 - 장시간 요리 피하기(구운 계란, 건조 과일 등-8시간 소요)



부록6) 환경교리학교 (정기 강좌) 안내문



제11기 환경교리학교

주제: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중립으로! -탄소중립의 다양한 길-

일 시 : 4월 19일~5월 31일(월요일 저녁 7-9시), 사회사목센터 4층

대 상 : 환경 교육 희망자

수강료 : 50,000원(환경분과장, 성직자, 수도자 무료/ 하늘땅물벗 회원 50% DC)

송금계좌 : 예금주-(재)인천교구천주교, 우리은행 1005-402-233614

문 의 : 환경사목부 032-765-7255

4/19	세계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략 조강희(환경공단 기후대기 본부장)
4/26	석탄발전, 핵발전소의 현재와 미래 김준한 신부(부산교구생태환경위원/ 남산성당 주임)
5/3	탄소 감축 지름길, 밥상에 있다 이윤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
5/10	교회내 햇빛발전소의 가능성 -대전 갈마동 성당 사례 중심- 최경해(불휘햇빛협동조합 운영위원장)
5/17	자원 순환으로 행복 순환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5/24	회칙<찬미받으소서>를 사는 교회의 이모저모 전의찬(세종대교수, 기후환경융합센터장)
5/31	탄소배출도 줄이고 땅도 되살리는 자연농업 이창현(금구유한회사 자연농업 대표) 파견미사(수료식 포함) 정성일 신부(사회사목국장)



천주교인천교구 사회사목국 환경사목부

부록7)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국민 프로그램
(서울 제외)
- 주관: 한국환경공단(2009~)
- 인천교구와 인천공단 업무 협약(2020.11.24)
- 내용: 신청 후 전기, 수도, 도시가스부분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전년대비 5% 이상 절감하면 환급을 받는다.(연 2회)
- 신청방법: 1) 인터넷 2) 모바일 앱 3) 서면 신청(행정복지센터 혹은 한국환경공단)
 - 인천교구: 각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사무실에 제출,
사무실에서 취합하여 환경공단으로 발송함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1. 경찰 · 교정사목부
2. 생명사목부
3.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4. 이주해양사목부
5. 정의평화위원회 · 노동사목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 실행 계획
경찰 · 교정 사목부

실행목표 (7가지)	경찰사목부 내용	교정사목부 내용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① 오염된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경찰의 역할 모색 ② 경찰 내 천주교 종교모임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 공감 및 방향모색	① 구치소 내 천주교 종교모임을 통해 환경오염 심각성 공감 및 방향모색 ② 수감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순교 방안모색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① 코로나 19로 인한 실질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 ② 부당한 실직, 무급휴직, 임금삭감 등으로 -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대안 마련	① 구치소내 물질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 ② 출소 이후 재정적 자립과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심
3. 생태 경제학	① 비환경적,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강경 대응	① 출소자 등 사회약자들에게 평등한 기업문화 조성
4. 검소한 생활양식	① 녹색순교 제안 (경찰서내 일회용품 줄이기) - 주 1회 채식하기	① 수감생활 안에서 녹색순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실천방안 모색 ② 출소 이후 일회용품 안쓰기, 육식생활 줄이기 등의 실천
5. 생태교육	① 경찰서 방문미사와 교우회 모임을 통한 생태 교리교육	① 구치소 방문미사를 통한 생태 교리교육
6. 생태영성	① 경찰 교우회 생태 영성 피정 및 캠프	① 교구 내 생태사도직 단체 등록 및 활동 방향 제시
7. 지역, 국가, 국제 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① 경찰서장 및 지방청장과 소통 및 의견 제시 ② 지역내 친환경 단체와 연대 전국 경찰 사목자 모임과 연계해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 공감과 가능한 방향 모색	① 구치소장 및 교도관들과 소통 및 의견 제시 지역내 친환경 단체와 연대 ② 전국 교정 사목자 모임과 연계해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 공감과 가능한 방향 모색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 실행 계획
생명사목부

실행목표 (7가지)	내 용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훼손된 지구의 현재 상황의 심각성 인식> 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명 교육 안내 ② 지구의 훼손이 결국 인간이 훼손된다는 환경 교육 안내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 ① 비가톨릭계 병원(인천의료원,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부천 세종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가은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와 이들을 진료하고 도와주는 의료진, 봉사자를 위한 병원 원목 활동 ② 취약계층의 장기이식수술비 및 난치병 수술비 지원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 미혼부 후원 ④ 해외 난민 돕기 (한국 카리타스와 연계)
3. 생태경제학	<윤리적 소비, 윤리적 투자 개념의 경제 활동 전개> ① 비윤리적, 반생명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명단 공유 및 불매 권고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동물실험,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 착취 등)
4. 검소한 생활양식	<생명나눔 운동 전개> ① 장기 기증 희망 신청을 받아 생명나눔 운동 전개 (헌혈증, 제대혈, 조혈모세포 기증 운동 포함) ② 생명나눔 운동을 위해 자신의 건강한 생활 유도 (금연, 절주, 약물 남용 금지, 자살 예방 교육 개설)
5. 생태교육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식> ① 우리의 몸을 돌보고 그 의미를 존중하는 생태론적 인간 생명교육 진행 ② 틴스타 교육이 지향하는 인격적 성교육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 (태아의 생존권 보호 및 낙태 예방 교육) ③ 자신의 생식력을 이해하여 실천하도록 도와줌 (자연주기법 교육)
6. 생태영성	<현대 인간 중심주의 사상의 문제점 전파> ① 돌봄의 문화 전개 (성경에서 말하는 '지배'(창세 1,28)에는 '일구고 돌보아 한다.'는(창세 2,15)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 모든 생명체에는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심을 인식시킴)
7. 지역, 국가, 국제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함께 대응해야 함을 강조> ① 모든 계층과 모든 분야에 전달될 수 있는 동시다발적 생명 존중 운동 전개 ② 빈곤 퇴치와 소외된 이들의 존엄 회복 운동이 자연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임을 인식시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 실행 계획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실행목표 (7가지)	내 용
1. 지구의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오염된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 ① 생명농업 실천 농민 발굴 및 확대 ② 생명다양성 보호를 위한 토종 종자 보급, 경작, 소비 ③ 우리농 본당 나눔터 확대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빈곤층에게 먹거리 평등권 보장> 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명농산물 꾸러미 지원 ② 소농과 청년농을 위한 영농자금 및 농지 지원
3.생태경제학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 ① 계약생산 책임소비 품목 확대. ② 운영 이익금 중 일부를 사회적 약자에게 환원
4. 검소한 생활양식	<우리의 삶을 생태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 ①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 ② 아이스 팩, 아이스 박스 재활용 ③ 주1회 채식하기 ④ 소포장 판매 방식 추구
5. 생태교육	<생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① 도시민의 유기농 텃밭 및 본당 공동체 텃밭 가꾸기 ② 모든 대상의 생태교리교육 ③ 내 아이를 위한 바른 먹거리 교육 ④ 생태 귀농 학교
6. 생태영성	<소비의 삶에서 생태적 삶으로 전환> ① 교구 생태사도직 단체 등록 및 활동 방향 제시 ② 생태 영성 피정 및 캠프 ③ 생태 사도직 활동가 양성
7. 지역, 국가, 국제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연대> ① 지역 아동 교육기관에 생명농산물 보급 ② 지역 내 친환경 농업 단체 등 유관 단체와 연대하기 ③ 북한에 친환경 퇴비 지원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 실행 계획
이주해양사무부

실행목표 (7가지)	내 용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① 전세계 해양사무 스텔라마리스와 연계해 해양 환경에 대한 문제성 공감과 개선 가능한 방향 모색(예: 방사능 폐수 방류에 대한 심각한 우려)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비자 만료 후 미등록 상태인 외국인 노동자 지원 ②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돌봄 ③ 전세계 해양사무 스텔라마리스와 연계한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독려 ④ 미등록 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소 운영 재개
3.생태경제학	① 윤리적 소비, 윤리적 투자 개념으로 국내 기업 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비윤리적 행위 및 착취하는 기업 공유 및 불매
4. 검소한 생활양식	① 미니멀리즘 홍보 (불필요한 물품 구매 최소화, 허영심 버리기, 만족하는 삶) ② 녹색 순교 제안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대중교통 이용, 전기사용 줄이기)
5. 생태교육	① 인천교구 관할 지역 내 중남미, 필리핀, 베트남 공동체 미사 강론 시간을 할애하여 인간 환경과 자연 환경에 관한 교육
6. 생태영성	① 창세기의 7일 창조 순서에 맞게 매일 피조물을 위한 기도와 피조물을 잘 돌보지 못한 역사에 대한 회개
7. 지역, 국가, 국제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① 전세계 해양사무 스텔라마리스와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 제시 ② 국내 환경 단체,특히 해양 환경 단체와 연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목표 실행 계획
정의평화위원회 · 노동사목부

실행목표 (7가지)	내 용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① 대체 에너지 생산을 위한 정책 압박 활동 ② 환경파괴 7위의 나라로서 석탄 발전 및 핵발전을 줄이고(나아가 없애고)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 정책적 압박의 활동을 한다.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①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가난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 증대 ②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와 청년 실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생태경제학	① 자본주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② 소비 중심에서 생태중심으로의 삶 ③ 소유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④ 캠페인 활동
4. 검소한 생활양식	① 노동자들과 함께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양식을 나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이외에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한다.
5. 생태교육	① 사회교리적 접근으로 타 부서와 연대활동, 청년교리, 청소년 교리 등에 사회 교리 접목, 찬미받으소서 교육
6. 생태영성	① 일반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활동이 되려면 그 뿌리가 되는 영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찬미받으소서에서 영성을 언급하는 이유이기에 찬미받으소서의 영성적 의미를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7. 지역, 국가, 국제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① 다양한 선전전 기획, 노동현장에서의 홍보 등을 통한 친환경 기업활동으로 변환 촉구

부록9)

[자의교서]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 설립에 관한 자의 교서

인간 발전

(Humanam Progressionem)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 교회는 그 존재와 활동에서 복음에 비추어 온전한 인간 발전을 촉진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정의, 평화, 창조 보전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돌보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는 이러한 가치를 촉진하는 자기 직무에서 협력 기구들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그들이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성좌가 위에서 언급한 분야만이 아니라 보건과 자선 활동 관련 분야를 돌보도록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를 설립합니다. 이 부서는 특히 이민, 궁핍한 이들, 아픈 이들, 배척된 이들, 사회적으로 차별된 이들, 무력 분쟁과 자연 재해의 희생자들, 감옥에 갇힌 이들, 실업자들, 모든 형태의 노예살이와 고문의 희생자들에 관한 문제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새 부서는 본인이 오늘 잠정 승인한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를 통합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1일에 기존의 4개 부서들은 그 직무를 정지하고 폐지됩니다. 그리고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의 제142-153조는 삭제됩니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정해진 모든 것이 온전하고 확고한 효력을 지니도록 결정합니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이 자의 교서를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하여 선포하고,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도 발표할 것을 명령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가지도록 결정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4년
2016년 8월 17일
자비의 희년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

(2020년 5월 24일 - 2021년 5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공동의 집에 관한 관심을 온 세상에 촉구하시고자, 2015년 5월 24일에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를 반포하시어 참다운 이정표로 삼으셨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 이 회칙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난 흠집”(「찬미받으소서」, 163항)은 극지방 만년설의 해빙에서 시작하여 아마존의 맹렬한 불길 확산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극한 기후 현상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구조 자체를 지탱해 주는 생물 다양성의 유례 없는 감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지구에 난 이 다양한 흠집은 너무도 분명하고 심각해서 더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찬미받으소서」, 160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예언자적 말씀이 우리 귓가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생태 훼손으로 이미 가장 먼저 심각한 희생을 당한 이들은 바로 전 세계 가난한 이들의 공동체들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찬미받으소서」, 49항) 앞에서 더 이상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또 다른 결정적 순간에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반포 5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은 하나의 분수령을 이룹니다. 그리하여 이 회칙은 2015년 당시 못지 않게 오늘날에도 예언적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배려와 형제애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공동의 여정에 나침반이 되어 줄 도덕적 영적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이는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승화시켜, 사랑과 연민과 연대로 일치를 이루는 새로운 생활 방식의 탄생과, 우리 공동의 집인 자연과 맺는 더욱 조화로운 관계의 탄생을 가져다줄 특별한 기회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우리가 모두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오늘날의 문제들이 세계적 위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시각을 요구하기 때문에”(「찬미받으소서」, 137항), 감염증 확산 이후의 세상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2020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한해를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기쁘게 선포합니다. 본 부서는 이 특별 기념의 해와 그 다음 십 년이 참으로 은총의 시간, 곧 지구와 인류와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참된 때(*kairós*)를 경험하는 ‘희년’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특별 기념의 해는 2020년 「찬미받으소서」 주간으로 시작되어, ‘생태적 회개의 실천’을 명백히 강조하는 일련의 공동 계획들로 이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참여하도록 모든 이를 초대합니다. 이 상황의 시급성은 지역, 국가, 세계를 망라하는 모든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총체적이며 일치된 응답을 요구합니다.

특히 풀뿌리 ‘대중 운동’, 곧 선의의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상기 시켜 주셨듯이,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14항).

이에 따라, 본 부서는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 경축을 위한 계획안들을 제시합니다. 이 계획안들은 추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여 줄 것과 아울러 여러분 지역 공동체 나름의 축하 행사도 추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미받으소서」주간’ 전 세계 거행(2020년 5월 16-24일)

‘지구와 인류를 위한 공동기도’

(2020년 5월 24일 정오, 세계 각지에서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찬미받으소서」의 시행 지침을 담은 교황청 부서간 상호협력 문서’ 발표(2020년 6월)

「찬미받으소서」의 평가와 나아갈 길

(2020년 6월 18일, 회칙 반포 5주년 기념 웹 세미나[Webinar])

피조물을 위한 기간(Season of Creation)(9월 1일 - 10월 4일)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보는 부서 소개(2020년 가을, 웹 세미나 시리즈)

글로벌 교육 연맹(Global Educational Alliance)의 재창안 (2020년 10월 15일)

‘프란치스코의 경제’ 회의(2020년 11월 21일)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 제3차 바티칸 원탁회의 (2021년 1월 26-29일)

종교 지도자 모임(안)(초봄)

세계 물의 날 (2021년 3월 22일)

「찬미받으소서」 특별기념의 해 폐막 행사

특별 기획회의(2021년 5월 20-22일)

전 세계 청년 성가대와 함께하는 뮤지컬 “찬미하라”(Laudate)

「찬미받으소서」 다개년 행동 플랫폼 출범

특별 기념의 해에 출범할 특별 기획

「찬미받으소서」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찬미받으소서」 살아 있는 경당’: 피조물 보호를 위한 국제 플랫폼

「찬미받으소서」 연구소 관계망(Laudato Si’ Institutes Network: LISTEN)

「찬미받으소서」 나무 심기 사업(2020년 5월 10일 젊은이들 주도로 출범)

에코(ECHO): 우리 공동의 집, 지구(ECHO: Earth, Our Common Home)

(「찬미받으소서」에 관한 영상 공연)

플라스틱 은행: 플라스틱 오염과의 투쟁

2020 성경 콘테스트(「찬미받으소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소셜 미디어로 펼쳐는

성경에 관한 제1회 세계 콘테스트)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찬미받으소서」의 통합 생태론의 정신을 따라
온전히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찬미받으소서」 다개년 행사 계획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 동안, 다양한 단체들은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을 따라 온전한 지속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을 시작할 것을 공약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추진할 것이다.

1. 「찬미받으소서」 가정: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가정)
2. 「찬미받으소서」 교구: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교구/본당)
3. 「찬미받으소서」 학교: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학교)
4. 「찬미받으소서」 대학교: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대학교/대학)
5. 「찬미받으소서」 병원/보건소: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병원/의료 시설)
6. 「찬미받으소서」 기업/농업 등: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기업/농업)
7. 「찬미받으소서」 수도회: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는 수도회/수도 관구)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통합 생태론 평가하기
(「찬미받으소서」의 목표)

1.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화석 연료를 줄이기, 생물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기, 모든 이가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등)
2.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원주민 공동체, 이민, 신종 노예의 위험에 놓여있는 어린이 등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임신[受精]에서 죽음까지 인간 생명을 수호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기)
3. **생태 경제학**(지속 가능한 생산, 공정 무역, 윤리적 소비, 윤리적 투자, 화석 연료와 지구와 사람들에게 해로운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 철회, 재생 에너지 투자 등)
4. **검소한 생활 양식** 채택(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절제, 곧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삼가기,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기르고 육류 소비를 줄이기,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해를 일으키는 교통 수단 이용 삼가기 등)
5. **생태 교육**(생태적 인식을 진작하고 그 구체적 행동을 복돋우며 젊은이들과 교사들과 교육계 지도자들의 생태적 소명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통합 생태론에 비추어 교육 과정을 재검토 재정립하고 교육 기관들을 개혁해 나가기 등)
6. **생태 영성**(하느님의 피조물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 회복하기, 경탄과 찬미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연을 더 많이 접하도록 장려하기, 피조물에 중점을 둔 전례 거행 촉진하기, 생태 교리 교육, 기도, 피정, 교육을 개발하기 등)
7.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장려하기, 지역과 이웃 생태계 안에 생태 의식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도록 장려하기 등)

***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의 실행**

우리는 앞서 언급한 기관들을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에 따라 통합 생태론의 7년 여정에 착수하도록 초대하면서, 2021년 초부터 「찬미받으소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다음 해인 2022년에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그룹이 이 7년 여정을 시작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해가 갈수록 그 전해에 비해 이 여정에 참여하는 그룹의 수가 계속 두 배씩 늘어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찬미받으소서」에서 영감을 받은 관계망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관계망이 해마다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되고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10년 동안 해마다 이 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에서 촉구하신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환점’에 도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찬미받으소서」 상 제정과 「찬미받으소서」 시상 계획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활동을 격려하고 증진하고자,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최고의 실천 노력들 가운데 일부를 치하하고자, 우리는 2021년부터 계속해서 해마다 「찬미받으소서」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찬미받으소서」 우수 지도자

「찬미받으소서」 우수 국제 지도자

「찬미받으소서」 우수 지역 활성화

「찬미받으소서」 우수 가정

2. 「찬미받으소서」 우수 교육 기관

「찬미받으소서」 우수 학교

「찬미받으소서」 우수 대학교/대학

4. 「찬미받으소서」 우수 신앙 공동체

「찬미받으소서」 우수 본당

「찬미받으소서」 우수 교구

「찬미받으소서」 우수 수도 공동체

5. 「찬미받으소서」 우수 활동 사업

「찬미받으소서」 우수 대중 운동

「찬미받으소서」 우수 청년 사업

6. 「찬미받으소서」 우수 경제/금융/기업/보건/노동/농업

(순환과 나눔의 경제, 재생 농업, 총체적인 건강 증진 실천 등의 분야에서)

7. 「찬미받으소서」 우수 커뮤니케이션 사업

(학술 발표, 예술 작품 등)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14항).

부록11)

한국 천주교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2020년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백성에게 참으로 아프고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와 방역을 위하여 봉사하며 희생을 아끼지 않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하느님의 도움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에서 코로나19로 이어진 감염증 확산 사태는 현대 물질문명이 큰 전환기에 와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사회의 모든 소통과 활동과 관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단순히 의학적, 경제적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현대 문명 전체의 구조와 균형 안에서 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산업 혁명 이후 인간이 자연을 무제한으로 개발하고 소비하고 폐기해도 되는 소유물로만 보고 피폐시키고 약탈해 온 결과입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견하며 현대 물질문명의 폐해를 명백히 지적한 예언적 가르침이었습니다. 회칙 서두에서 교황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 그리고 폭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인 지구가 황폐해지고 울부짖고 있다며 비탄하셨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 참조). 이 회칙은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찬미받으소서」, 160항)라는 엄중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 모두 ‘생태적 회개’에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칙이 반포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 지구는 끊임없이 훼손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지구 생태계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울부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후 위기 상황과 우리나라의 안이한 대처

2018년 10월 8일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제48차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1.5도 특별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앞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퍼센트로 줄여야 하며,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이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는 원래 기후로 되돌아갈 수 있는 탄력을 잃어버려 결국 지구의 모든 생태계는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세계적인 분석 기관인 ‘기후 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2016년에 우리나라를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하였습니다. ‘기후 악당 국가’는 기후 변화에 무책임하고 나태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까지도 화석 연료에 따른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7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배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친환경 뉴딜 정책에는 기후 위기의 주범인 이산화 탄소 배출의 획기적인 감축 전망과 전략은 찾아볼 수 없고, 디지털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효율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녹색 성장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별 기념의 해와 7년 여정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2020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한 해를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하고, 2022년부터는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을 출범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지역 교회의 가정, 본당과 교구, 수도회, 학교, 병원, 기업과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 7년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2020-2021년의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와 그 다음 이어지는 7년이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때(kairós)’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은총을 실제로 체험하는 ‘희년’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활동

내년에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조선의 첫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께서는, 조선의 백성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천연두의 유행으로 어린이들이 죽어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 병을 퇴치할 처방을 알려 달라고 프랑스 선교사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도 비위생적인 물 때문에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과 백성을 위하여 물을 정화하는 처방을 알려 달라고 프랑스 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초대 교회의 두 기둥은 고통과 환난에 시달리는 양 떼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서도 그 동안 생태계 안에 아로새겨진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자 ‘환경의 날’, ‘농민 주일’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등에 지속적으로 담화를 발표하며,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안내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2020년 5월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기념하며 “기후 위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서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회개와 다짐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찬미받으소서」, 49항)에 귀를 기울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 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마태 28,18-20 참조)는 교회의 선교 사명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기후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과 피조물들의 고통에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힘 있는 이익 집단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희생되는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지 못하였으며, 생태계 파괴 현장을 보면서도 피조물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기후 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찬미받으소서」, 52항)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며 복음을 선포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과제

우리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파멸로 치닫는 지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식 없이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며 에너지를 무한정 소비해 왔던 나날을 깊이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도 보편 교회와 한마음으로 7년간의 생태적 희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후 위기와 어머니 지구의 울부짖음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 교구는 사목 교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태적 회개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각 본당과 위원회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교구와 단체에서 수행해 나갈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생태적 회개’는 현시대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이며, 피조물 안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회개가 단지 ‘환경 보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모든 사목 분야에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로 승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모후이신 성모님!

이 칠후 같은 어둠의 시간에 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는 저희를 저버리지 마소서.”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 총회를 마치며

2020년 10월 16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부록12)

특별 사목 교서 실천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교황님의 뜻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실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가정과 본당, 교구,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실천해야 하는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체 및 공동체 별로 실천해야 할 방안들은 앞으로 계속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 지침들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5년에 반포하신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전망 안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2010년에 발간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환경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지침서』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해 가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차 례

1. 가정 공동체의 실천 지침 ----- 4
 - 1)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
 - 2) 실천 사항
 - ① 생태적 기도
 - ② 쓰레기
 - ③ 에너지
 - ④ 식생활 습관

2. 본당 공동체의 실천 지침 ----- 6

- 1) 본당 공동체의 중요성
- 2) 실천 사항
 - ① 사목 협의회
 - ② 본당 봉사자
 - ③ 전례분과
 - ④ 청소년분과
 - ⑤ 청·장년회 및 노인분과
 - ⑥ 여성분과
 - ⑦ 생태환경분과
 - ⑧ 우리농촌살리기운동

3. 교구 공동체의 실천 지침 ----- 9

- 1) 교구 공동체의 중요성
- 2) 실천 사항
 - ① 사목 평의회
 - ② 사회 사목국
 - ③ 교육국, 청소년국
 - ④ 관리국, 재정관리 위원회
 - ⑤ 건축 위원회
 - ⑥ 축성 생활회

4. 사회 공동체의 실천 지침 ----- 12

- 1) 모든 신자의 생태 사도직 참여
- 2) 직업에 따른 다양한 역할
 - ① 정치인
 - ② 공무원
 - ③ 과학자
 - ④ 교육자
 - ⑤ 노동자
 - ⑥ 기업인
 - ⑦ 농업인
 - ⑧ 어업인
 - ⑨ 자영업
- 3) 이웃 종교
- 4) 타 교파와의 협력
- 5) 시민 단체와의 연대

1. 가정 공동체의 실천 지침

1)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

생태적 삶의 궁극적인 출발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 주는 법을 처음 배웁니다. 예를 들어, 사물의 올바른 사용, 질서, 청결, 지역 생태계 존중, 모든 피조물 보호를 배우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213항 참조). 가정의 변화는 사회와 세상 변화의 시작이자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어린이들이 하느님 창조의 신비와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해 섬세하게 배려하는 자세를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은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 부모들은 끊임없이 창조 질서에 관한 교회의 사회교리를 배우고 신앙으로 고무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 창조의 일꾼으로서 피조물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듯이, 병들어 신음하는 생태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과는 달리 ‘기도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기도한 바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에 부합한 행동을 동시에 요청하므로, 가정에서부터 하느님의 창조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바로 창조 질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2) 실천 사항

① 생태적 기도

- 생태적 기도는 관계성 회복의 기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관계(relation, relationship)’라는 단어를 70회 이상 사용하십니다. 관계는 피조물 세계의 본질입니다. 관계는 창조의 본질이며, 창조주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안에 드러난 관계의 신비를 관상하면 생태계 전체는 창조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송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찬미받으소서」, 87항).

- 생태적 기도는 자연과 환경보호만을 추구하는 녹색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와 함께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의 모든 순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육화의 기도입니다.

- 생태적 기도는 지구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과의 상호 관계성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안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경배하는 우주적 기도입니다.

- 생태적 기도는 일상의 모든 순간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통합적 기도입니다.

- 생태적 기도를 위해서는 양심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선물하셨기에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포기하고 누가 보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관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220항).

- 생태적 기도를 통해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찬미받으소서」, 222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비주의에 물들었던 삶에서 탈피

하여, 물질적으로는 검소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황폐해진 피조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② 쓰레기

- “해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맹독성이며 방사능이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1항). 쓰레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언어 쓰레기, 행동 쓰레기, 생각 쓰레기, 정보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범주를 물질에서부터 의식과 감정까지로 넓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쓰레기가 넘쳐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버리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찬미받으소서」, 22항).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문화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들어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쓰레기가 넘쳐나고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③ 에너지

- “많은 과학적 연구는 최근 수십 년간의 지구 온난화가, 대부분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곧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 질소와 같은 화학 물질들의 농도가 매우 짙어졌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찬미받으소서」, 23항).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편리함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 7층 이하는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며, 환승역도 걸어보십시오.
- 무엇보다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일과 이동을 줄여 에너지의 흐름을 바라보십시오.
- 실내 조명을 너무 밝게 하지 않고, 자연 채광이 어디에 있는지 둘러보십시오.

④ 식생활 습관

- 근거리 농산물(로컬푸드)을 이용하십시오. 수입 농산물은 먼 거리에서 이동해 오기 때문에 그만큼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해 기후 위기를 가중시키며, 방부제의 과다 첨가로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 육식보다는 채식을 생활화하십시오. 농지의 83%가 가축 사육에 사용되고 있으며,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58%가 동물성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됩니다. 이에 서유럽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류세 도입 및 관련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런던의 골드스미스대학은 캠퍼스에서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쇠고기를 퇴출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작년부터 교육부 행사에서 채식이 기본 식단이며, 고기나 생선은 요청할 때만 제공합니다.

현대 세계의 엄청난 자연 파괴는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가지려는 인간의 무절제한 소비주의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소비주의 생활양식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되고 끝내 인간과 피조물 전체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미래 세대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로 사라지고 있는 동식물을 기억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한다면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선을 퍼뜨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찬미받으소서」, 212항).

2. 본당 공동체의 실천 지침

1) 본당 공동체의 중요성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가톨릭 신자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바로 본당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생태적 활동은 본당 직무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소수의 봉사자들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본당 사목자와 신자들 모두는 소속 단체와 위원회를 통해 유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생태적 회개에 대한 비전을 찾고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2) 실천 사항

① 사목 협의회

- 본당의 사목 협의회는 본당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본당 공동체의 목자인 주임 신부의 자문 및 의결기구로서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 본당의 사목 협의회는 ‘생태적 회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되, 기도와 교육 및 실천의 차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본당 봉사자

- 본당 봉사자들은 창조 질서 보전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본당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본당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가운데서 사제직과 봉사직에만 머물지 말고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예언직을 충실히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 본당 봉사자들은 창조 질서 보전을 본당 안에서 촉진시키기 위해 신학과 교회의 가르침, 특히 생태적 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③ 전례분과

- 성찬례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위한 빛의 원천이며 동기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찬미받으소서」, 236항)고 일깨웁니다. 곧 성사 생활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 전례 안에서 ‘생태적 회개’에 대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피조물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는 생태적 기도를 전례 안에서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 전례 안에서 거행되는 성사(聖事)가 기후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의 비상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책임과 평화 및 창조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십시오.

④ 청소년분과

- 주일학교 교육 과정에 성경에 나타난 창조론과 생태적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강화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청소년들에게 물과 공기, 불, 지구, 동물 등 자연과 접촉하며 느끼는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보다 인격이 완성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청소년 캠프와 피정을 준비할 때, 자연 안에서 창조적이고 사회적이면서도 영성적인 양식을 얻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 창조의 아름다운 신비에 대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자연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도록 용기를 줍니다.
- 생태적 회개와 관련된 주제로 노래 대회나 글짓기,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 생명을 돌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나무 심는 운동을 실천합니다.

⑤ 청·장년회 및 노인분과

- 청·장년회 및 노인대학의 교육 과정에 ‘생태적 회개’에 대한 강좌가 필요합니다.
- 본당 안에서 활동하는 청·장년회 및 노인분과에서는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순환 방식을 도입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22항 참조). 현재의 경제체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부추겨서 이익을 얻지만 폐기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이러한 폐기물들의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순환형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본당의 시설분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당 공동체가 녹색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 본당 공동체에서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기”(「찬미받으소서」, 49항) 위하여, 시설의 여유 공간이나 지역 사회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노인 등)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⑥ 여성분과

- 한국 교회 구성원의 70% 이상이 여성 신자이며, 본당에서도 여성 신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성분과(자모회, 성모회 등)에 대한 생태적 교육을 통하여 본당 안에서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여성분과 안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생태-여성 신학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강좌가 필요합니다. 생태-여성신학은 인간 중심적인 신학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신성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여성분과에 있는 여성 신자들이 창조 질서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받고 가정과 본당 및 사회 안에서 중요한 여성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목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⑦ 생태환경분과

- 본당 사목 평의회 산하에 ‘생태환경분과’를 설치하여 생태 문제를 담당하게 합니다.
- ‘생태환경분과’의 담당자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 생태 문제와 연관된 모든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 본당 차원의 각종 행사도 친환경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생태환경분과’는 창조 질서와 연관된 공동체의 관심 사항을 본당 사목평의회의 의제로 제

기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⑧ 우리농촌살리기운동

- 창조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먹거리입니다. 생태적회개 운동을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는 음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본당 신자들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본당 주일학교에 제공되는 간식과 먹을거리들을 친환경적인 생명의 먹을거리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본당 공동체 안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 매장을 설치하여 생태적 교육의 효과가 본당 안에서 직접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3. 교구 공동체의 실천 지침

1) 교구 공동체의 중요성

교구 공동체는 하느님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교구장과 그 목자적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제들 그리고 수도자들과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구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은 교구장의 사목 지침에 따라 개별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구공동체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그리고 사도좌와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결속을 이루어, 하나이고 보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도좌는 2022년부터 온 세계가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여정을 출범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각 지역의 교구 공동체도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 사도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시작되는 7년간의 여정이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때(kairós)’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은총을 실제로 체험하는 ‘희년’이 되기를 준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교구 공동체는 앞으로 7년간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때(kairós)’를 준비하면서 교구 단위의 창조 질서 보전 활동을 주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전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많은 교구에 설립되어 있는 ‘환경사목위원회’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각 본당의 사목평의회 환경 관련 분과의 담당자와 소속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구 안에서 매년 ‘생태적 실천 모범 본당’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이 교구 안에서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을 만큼 정착한다면, 이 상을 통해 본당 공동체가 같은 생태 정신으로 단합하고 생태적 삶의 모범으로 자극받으며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사목 전담 기구의 책임을 맡은 사제들이 교구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조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구의 사목 정책이나 재산 관리 등 모든 일들이 친환경적으로 결정, 실행될 수 있도록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판단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자들에게 환경문제를 신앙적으로 고양시켜야 할 사 환경 담당 사제들만의 몫이라기보다는 모든 사제가 관심을 두고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신자에게 골고루 성숙한 창조 신앙의 실천과 그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천 사항

① 사목 평의회

-사목 평의회는 ‘생태적 회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되, 기도와 교육 및 실천의 차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목평의회는 각 교구의 모든 국과 위원회의 고유한 사도직 안에서 ‘생태적 회개’에 대한 영성이 구체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② 사회 사목국

-“인간에 대한 온유, 연민,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자연의 다른 피조물과도 깊은 친교를 올바로 느낄 수 없습니다”(「찬미받으소서」, 91항).

-그리스도인들은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빈곤,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각 교구의 사회 사목국 산하에 있는 정의평화, 노동사목, 환경사목, 노인복지, 빈민사목, 이주사목, 사회복지회, 병원사목, 교정사목 등 모든 위원회는 창조 질서 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각 위원회의 고유한 사도직 안에서 ‘생태적 회개’가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사회 사목국 안에 있는 각 위원회들이 정기적인 회의와 만남을 통해 ‘생태적 회개’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③ 교육국, 청소년국

-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생태적 회개’를 위한 노력에서, ‘동기 부여와 교육 과정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다’(「찬미받으소서」, 15항 참조)고 확신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교육은 학교, 가정, 커뮤니케이션 매체, 교리 교육과 같은 다양한 영역”(「찬미받으소서」, 213항)을 모두 포괄하는 전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 각 교구의 교육국은 생태환경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생태적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교구청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각 본당과 기관,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관리 및 사무 직원, 사제관 식복사, 제의방 봉사자들에게도 생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모든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치유하지 않고는 우리가 자연과 환경과 맺은 관계의 치유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찬미받으소서」, 119항). 교구 내의 모든 단체의 교육 안에 ‘성교육’(나 자신과의 관계), ‘정치교육’(사회와의 관계), ‘생태교육’(자연과의 관계)이 통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계획합니다.

- 각 본당의 주일학교와 예비신자 교리교육 과정에 창조 질서 회복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교재를 편찬해야 하고 강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대신학교 교과 과정과 사제 평생교육 안에도 창조 질서에 관한 내용이 정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④ 관리국, 재정관리 위원회

- 재정관리 위원회는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려면, 현세 재물에 대한 애착을 조절하기 위해서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하고, 이웃의 권리를 보호하고 … 정의의 덕을 실천해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407항)는 교회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 교구의 자산이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에 있다면 철회(Divestment)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화석연료 기업이 문제라면 그러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 교구의 재정을 계획하고 운용할 때에는, 형제성/공동선의 원리, 생태 영성의 적용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교구의 재정 집행은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 부합한지를 평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구 차원의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⑤ 건축 위원회

- 건축 위원회는 성경에 나타난 생태적 교회 건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학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 건축 위원회는 교회 건물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건축 위원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과 자연에 어울리는 형태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 건축 위원회는 교구 내의 성당 신축과 개축 등에서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 특히 사제관이나 본당 사무실, 교구청이나 교육관 등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빗물 저장 저수조 시설을 갖춘 성당이나 교회 건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⑥ 축성 생활회

- 수도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약화되고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수도자들은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특히 은수 생활은 관상적 체험을, 수도승 생활은 공동체 체험을, 탁발 수도회는 복음적 청빈과 설교를 세상 한가운데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 현대의 수도 공동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겪으면서 규율과 수덕과 윤리적 차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 수도생활 안에서 거의 사라진 예언자적 전통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 예언자적 전통은 종교적 세계를 정(淨)한 것과 부정(不淨)한 것이라는 범주를 갖고있는 경신례 전통과 다르게, 은총과 정의 그리고 신비적인 요소를 강조합니다. 수도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체험과 복음적 맛이 있는지 가장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 수도 공동체는 교회 건물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성소자 부족 현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음적 가난과 육화의 창조성을 되살릴 수 있는 신학적 의미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 수도 공동체는 각 수도회 안에서 창조 질서 보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자를 임명하여, 수도회 내부의 활성화와 지역 사회와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4. 사회 공동체의 실천 지침

1) 모든 신자의 생태 사도직 참여

교회가 현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 사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 질서의 올바른 회복을 위해서도 신자들은 생태사도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 직업에 따른 다양한 역할

① 정치인

신자 정치인은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권력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느님뿐입니다. 따라서 신자 정치인은 나라와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그들의 결정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가톨릭 사회 교리를 배워야 하며,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늘 염려해야 합니다.

특히 신자 정치인들은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더 큰 책임감, 더 강한 공동체 의식, 특별한 보호 능력, 더 많은 창의력”(「찬미받으소서」, 179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선언해 법률로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회 또한 기후 위기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할 특별기구 설치와 관련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신자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② 공무원

신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우리의 금수강산이 오염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에게 생태 위기 극복의 막중한 책임도 함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③ 과학자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창조의 신비를 학문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능력이 하느님 창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염과 파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 뿐만 아니라, 온난화와 이상 기후 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이 요청됩니다.

④ 교육자

인간 세상의 발전은 교육의 힘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올바른 교육의 결과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을 길러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 질서 회복의 중대성과 당위성

을 깨닫게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각종 형태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종사하는 신자 교육자들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교육의 선봉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⑤ 노동자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기완성과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창조사업에 협조자로서 참여합니다. 곧, 노동 안에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느님 모상’으로서 인간의 위상이 잘 드러납니다. 이 점을 망각하고 인간 스스로 창조주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이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위한 일종의 ‘봉헌’임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⑥ 기업인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 창조사업의 제 일선에 있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의 생산 활동은 생태계 파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산 활동의 직접적 결과로 공기와 물과 땅이 오염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양심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준수하고, 자연의 파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⑦ 농업인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심각하게 위험한 수준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의 비율도 최저로 떨어졌으며 대부분 노령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뜻있는 사람들이 귀농하여 생태 유기농업의 씨앗을 뿌리고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고 희망적입니다. 정부와 교회도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농업인 스스로도 생명 농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느님 창조사업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⑧ 어업인

어업인의 경우도 농업인에 비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날로 오염되어 가는 강과 바다는 청정 수산물과 해산물을 공급하는 일을 무척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어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리면서, 어업 활동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강과 바다에서 창조의 신비와 직접 대면할 수 있고, 그 수확물을 거두는 신성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 어업인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강과 바다를 지키는 ‘청지기’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⑨ 자영업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5% 수준으로 매우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문제까지 신경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에 봉사하는 사랑의 수단이므로, 신앙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창조 질서 회복을 염려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신앙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3) 이웃 종교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인들의 상호 협력도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공통 관심사는 ‘생명의 가치’,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는 같은 목표 아래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종교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는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층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타 교파와의 협력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교회 일치 차원에서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본당 차원에서도 생태 문제는 갈라진 교회의 신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므로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하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한층 개방적이고 대화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시민 단체와의 연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시민 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태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직접 참여하거나 시민 단체의 환경 운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 시민 단체의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교회는 열정적으로 공동선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이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위하여 투신하는 그들을, 교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제 1판 1쇄 발행 2021년 5월

발행: 정신철 주교(인천교구장)

편집: 정성일 신부(사회사목국장)

표지그림: 문 마리루치아 수녀(노틀담수녀회)

발행처: 천주교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환경사목부

주소: 인천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번지 천주교 인천교구청 사회사목센터

전화: 032-765-7255



“하느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가끔 용서 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스페인 속담
교황 프란치스코 인용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찬미하나이다.
전능하신 성부께서 손수 빚으신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자애로 충만하나이다.
찬미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만물이 당신을 통하여 창조되었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모 마리아께 잉태되시어 이 땅에 속하셨으며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오늘도 당신 부활의 영광 안에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 계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성령님, 성령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하시나이다.
성령께서는 또한 저희 안에 머무르시며 저희를 선으로 이끄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삼위일체이신 주 하느님,
무한한 사랑의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시니
만물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통하여
저희의 찬미와 감사를 일깨워 주소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친밀한 일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맞갖은 자리를 보여 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옵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진 이들을 깨우치시어 무관심의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을 사랑하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가 부르짖고 있나이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받으소서!

아멘.



